

리아호나



**로렌조 스노우 회장의
삶과 가르침에서
얻은 영감, 12, 18쪽**

지혜를 찾아서, 20쪽

학업과 평생의 사명, 54쪽

우리는 정말 친구가 될 수 있을까? 58쪽



“하나님께
비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께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여러분은
주님께 중요합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20쪽.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주님의 음성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선교 사업

특집 기사

- 12 피클, 순무, 그리고 간증: 로렌조 스노우의 삶과 가르침이 주는 영감
애런 엘 웨스트
올해 떨기세탁 신권회와 상호부조회 학습 과정을 소개한다.

- 20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닐 엘 앤더슨 장로
오늘날 정보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절실하게 지혜가 필요한가
- 28 가정에서 나누는 가르침의 의미
있어지도록
대런 이 슈미트
자녀들에게 삶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는 네 가지 방법
- 32 청년과 선교 사업 결정

- 교회 분부 기사
- 8 10월 연차 대회 노트
- 10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충분히 온전하도록
미셸 레에스
- 31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가르치기: 교육의 가치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74 교회 소식
- 79 가정의 밤 제언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5분의 실수
크리스토퍼 제이 스미스

표지
 앞: 로렌조 스노우 사진, 알 세비지, 엘 톰 페리의 특별 소장품, 해롤드 비 리 도서관, 브리검 영 대학교; 액자 제공: 의회 도서관, 워싱턴 D.C. 뒷면 사진: 존 월러드 클로선 © IRI. 앞 표지 내부 사진 촬영: 앤드레이 슈밀린

청년 성인



42

- 42** 신앙, 소망, 그리고 관계
마이클 티 링우드 장로
신앙의 세 요소는 어떻게 여러분이
구애하고 결혼을 결정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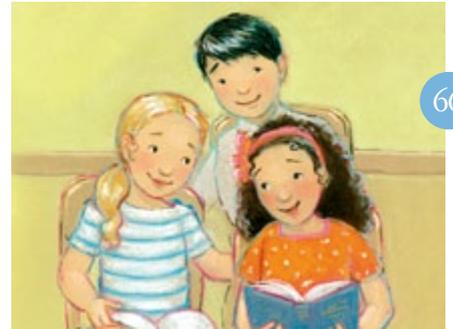


54

청소년

- 18** 로렌조 스노우 알아보기
크리스토퍼 디 포스
스노우 회장에 대해 잘 몰랐던 몇 가지
영감 어린 이야기
- 46** 물문경을 나누십시오
후안 에이 우세다 장로
친구에게 물문경을 나누면, 놀라운
개종 경험으로 인도될 수 있다.
- 49**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리와 성약 87편 8절
올해 상호 향상 모임 주제는 안전하기
위해서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 50** 2013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본부 청년 회장, 청년 회장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방법.
- 52** 아궁이 배드민턴에서 배운 것
애덤 시 올슨
희망을 갖는 것은 어떻게 현재 우리
삶을 축복할 수 있는가
- 54**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교육
크레이그 에이 카든 장로
- 56** 계속 연습하면
윌리스 켄슨
피아노 교습이 훗날 내가 영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 57** 포스터: 거룩한 곳에 서십시오
- 58** 카일리에게서 좋은 면을 찾아라
카린 스테이시
엄마는 학교의 말썬쟁이를 그제
친구가 필요한 아이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린이



66

- 59** 특별한 증인:
어떻게 간증을 얻을 수 있나요?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60** 우리 가족을 위한 계획
머리사 위드슨
조선아인 레비의 여동생은 기도와
신권 축복이 필요했다.
- 62** 유적지 탐방: 조셉 스미스가 살았던
두 채의 가옥
젠 핀보로우
- 64** 예수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첫번째 시험
- 65** 우리들 이야기
- 66** 읽을 수 있을 때까지
메릴리 부른
우정과 친절로 메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 68** 가정에서 초등회 적용하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 81** 선지자 초상화: 조셉 스미스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리아호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2013년 1월호, 제50권, 제1호
리아호나 10781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화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바 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사도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욱스, 엠 레슬 블라드,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록,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크레이그 에이 카든

교문: 세인 엠 바운, 브래들리 디 포스터, 크리스토퍼 골든 이세, 앤서니 디 파킨스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와너

가족 및 회원 지원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엘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르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린 포터 건트

출판 보조: 알리사 켈티노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수잔 배렛, 라이언 카,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클리튼, 민디 라에 프리드만, 히카리 로퍼터스, 리아 맥클러나헨, 마이클 알

모리스, 리처드 엠 롬니, 폴 벤덴버그, 줄리아 우드버리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팀: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케리 린 시

해린, 콜린 킴클러, 에릭 피 존슨, 스카 엠 무이, 브래드 터어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부장: 제인 엘 피터슨

제작 팀: 콘니 바숄프 브릿지,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캐슬린 하워드, 드니스 커비, जि니 제이 넬슨, 가일 타데 리퍼티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우 책임자: 에반 알슨

통 권: 제554호, 제50권, 제1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3년 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감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church.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o@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church.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광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로 보내 주시기거나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3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January 2013 Vol. 37 No. 13.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인터넷 기사 더 읽기

Liahona.lds.org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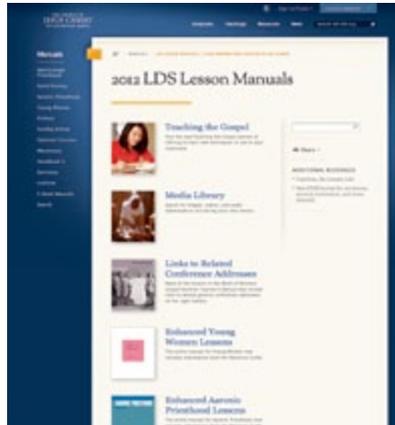
12쪽 기사에서는 올해 멜기세덱 신권회와 상호부조회 시간에 배울 과정에 대해 소개한다. 온라인상에서 교재를 읽고 싶으면 LDS.org에서 "Resources(자료)"에 가면 찾을 수 있다.

청소년

50쪽에서 칠십인 크레이그 에이 카든 장로는 교육이 어떻게 평생의 사명에 영향을 주는지 가르친다. youth.lds.org의 For the Strength of Youth(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교육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가 실린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르침, 28

가족, 28, 60

간증, 39, 46, 59

결혼, 42

경전 공부, 28

계시, 32

교육, 31, 54, 56

교회 역사, 12, 18, 32, 62

기도, 4, 39, 60

로렌조 스노우, 12, 18

방문 교육, 7

부모 본분, 28

상호 향상 모임 주제, 49, 50

선교 사업, 7, 38, 40, 41, 46

선택의지, 80

성신, 4

성전, 65, 70

소망, 42, 52

순종, 32

신권 축복, 40, 60

신성한 본질, 68

신앙, 42

어머니의 본분, 10

역경, 10

예수 그리스도, 10

우정, 58

음악, 56

재정, 20

조셉 스미스, 32, 42, 62, 64, 81

지혜, 20

첫번째 시험, 39, 62, 64

치유, 10

친절, 58, 66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주님의 음성

교리와 성약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라고 권유합니다.(교리와 성약 1:2, 4, 11, 34; 25:16 참조) 그 책에는 그분의 메시지와 경고, 선택된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계시를 따르라는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계시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으로 드린 기도에 어떻게 지침과 평화, 경고 메시지로 답하시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현세와 내세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 앞길에 놓여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평범한 사람들과 선지자들이 겸손하게 기도하며 여쭙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교리와 성약은 우리의 현세적인 복리와 영원한 구원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소중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열쇠는 바로 겸손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몰몬경 번역을 돕고자 하는 그의 소망에 관해서 주님께 이러한 답을 받았습니다. “신앙 없이는 네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신앙으로 구하라. 이 일들을 소홀히 다루지 말며, 네가 마땅히 구해서는 아니 될 것을 구하지 말라.”(교리와 성약 8:10)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은 여러 번, 도움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신앙과 겸손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의 답이 늘 우리가 기대한 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제나 그 답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역사와 조상들의 경험이 이 같은 현실을 잘 설명해 줍니다. 제 증조부인 헨리 아이어링은 1855년에 회복된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답은 꿈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꿈에서 그분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에라스투스 스노우 장로님과 윌리엄 브라운 장로님과 함께 탁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노우 장로님은 한 시간 정도 복음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후 스노우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브라운 장로]이 당신을 침례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가족은 브라운 장로님에게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의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서 아침 7시 30분에 침례를 받을 만큼 큰 신앙과 겸손함을 지녔던 증조부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주님의 육성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리하이처럼 밤에 시현과 꿈으로 주어졌습니다.(니파이전서 8:2 참조)



왼쪽: 이 일지에 헨리 아이어링(왼쪽 사진)은 팔리 피 프랫(오른쪽 사진)의 순교 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했다. 오른쪽 일지에서는 순교를 언급하고 있다. 일지 밑에 1890년 판 교리와 성약이 놓여 있다.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1. 이 기사에서 기도에 관한 단락을 함께 읽어 본다. 읽으면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에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주의 깊게 들어 보라고 한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한다.

2. 교리와 성약에는 사람들이 기도로 드렸던 질문에 대한 응답이 담겨 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계시)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족들에게 영을 인식하고 그 속삭임을 따르는 법을 배우도록 격려한다. 가족들은 일지에 기도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주님은 응답이 느낌으로 올 수도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그분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보라, 나는 네게 임하여 네 마음에 거할 성신으로 말미암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교리와 성약 8:2)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올리버를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네 생각에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보다 무슨 더 큰 증거를 얻을 수 있겠느냐?”(교리와 성약 6:23)

저는 교리와 성약, 교회 역사, 그리고 침례 받은 직후 선교 사업을 떠난 제 증조부 헨리 아이어링이 기록한 역사에서 응답이 평강뿐만 아니라 경고로서도 올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1857년 4월, 십이사도 정원회의 팔리 피 프랫은 현재 미국 오클라호마 지역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헨리 아이어링은 프랫 장로님이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도 몰랐기 때문에 ……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암울한 생각으로 가득했다.”²고 기록하셨습니다. 증조부는 그 사도가 순교한 직후 그 슬픈 소식을 기록했습니다. 프랫 장로님은 선지자 조셉이 카테지 감옥으로 갔던 것처럼, 위험이 닥치리라는 느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정을 계속해 나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앙으로 드리는 겸손한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신다는 것을 간증으로 전합니다. 교리와 성약과 우리 각자의 경험은 이러한 답이 지시이든, 진리를 확인하는 것이든, 혹은 경고이든지 간에 이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깃든 음성에 귀 기울이고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주

1. “The Journal of Henry Eyring: 1835-1902”(미 출판 원고, 저자 소유)

2. “The Journal of Henry Eyring: 1835-1902.”

성신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마리아 이사벨 몰리나

어느 날 밤, 어린 사촌이 가출을 했고 나는 급히 그 아이를 찾으러 돌아다녔다. 운전하는 동안 나는 기도를 드리며 영의 도움을 청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리라 믿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영의 속삭임을 들으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절망감이 엄습하여 영이 내게 속삭이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었다.

좀 더 멀리 가서 찾아보려 했지만, 사촌의 집 주변 지역에 머물러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그 지역을 차로 한 번 더 찾아보기로 했다.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 한 어린 소녀가 걸어가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사촌을 발견한 것이었다!

차에서 내려 달려가면서 나는 영이 같은 지역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느낌을 주면서 계속 나를 인도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조용한 음성만을 들으려 했기에 영감을 간과했던 것이다. 그때 나는 많은 경우,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슴 속에 영감은 느낄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영의 인도에 참으로 감사했다. 참으로 그분은 언제나 주위에 계신다! 경전에서 말하는 대로 “성신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121:46)

우리가 성신의 인도를 받기에 합당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될 수 있다. 영과 항상 함께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어린이 기도 모험

아이러링 회장님은 기도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러한 방법을 찾기 위한 경전 찾기 모험을 해 보세요.

이 지도로 배움의 여정을 떠나볼까요? 지도에 나오는 각 경전 구절을 찾아보세요. 빈칸에 기도의 응답에 관한 경전 내용을 몇 마디로 요약해 보세요.

여정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경험뿐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는 것에 관해서도 일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1 요한복음 14:26

2 교리와 성약 6:22~23

3 교리와 성약 8:2

4 교리와 성약 9:8~9



X 잠언 8:10~11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또한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reliefsociety.lds.org에 접속한다.

선교 사업

후 기 성도들은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교리와 성약 138:56) 보내지며, 그러한 일에는 선교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공식적인 선교사 부름을 받을 필요는 없다. 앞으로의 삶에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으며 우리가 자신을 준비해 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방문 교사는 자신의 영적인 책임을 받아들이고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모세서 1:39)을 도울 수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42년에 상호부조회를 조직하며 여성들이 빈곤한 사람들을 돌볼 뿐 아니라 영혼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했다.¹ 이 일은 여전히 우리의 목적이다.

“주님께서는 진리에 대한 간증을,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려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그리고 주님은 그분의 교회 회원인 우리가 ‘어느 때든지 [그들의] 입을 열어 기쁨에 찬 소리로 [그분의] 복음을 선포(교리와 성약 28:16)하기를 바라십니다. …… 때로는 한 마디로 표현한 간증이 연쇄 작용을 일으켜 다른 사람의 삶에 영원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²



성구에서

교리와 성약 1:20~23; 18:15; 123:12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453쪽 참조.
2.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앉아 기다리며”,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76~77쪽.
3.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년), 92~95쪽 참조.

신앙, 가족, 구제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과거 체코슬로바키아라 불리던 곳에 살았던 올가 코바로바는 우리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회원 선교 사업에 관한 모범으로 꼽힌다. 1970년대에 의대생이었던 올가는 더 깊은 영적인 삶을 갈구하고 있었다. 올가는 75세인 후기 성도 오타카 보즈쿠브카를 알게 되었다. 올가는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연세가 일흔 다섯은 되어 보였지만 마음은 열여덟 살에 가까웠고 기쁨이 넘쳤다.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팽배했기에 이런 분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올가는 오타카와 그의 가족에게 그들이 어떻게 기쁨을 찾았는지 물어보았다. 그들은 올가를 다른 교회 회원에게 소개했고, 물문경도 주었다. 올가는 물문경을 열심히 읽었고 곧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그 후, 올가는 정치 탄압과 종교 박해가 자행되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 왔다. 올가는 자신의 조그만 지부에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했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오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구했다.³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내가 방문하는 자매들에게 간증을 전할 때 성신의 속삭임을 따르는가?
2. 내가 돌보는 자매들이 복음을 배우도록 어떻게 돕고 있는가?

10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2년 10월 연차 대회를 복습하면서 다음 내용(그리고 앞으로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최근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대회에서 발췌한 이야기

우리가 만난 것이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몸 시도 추웠던 1983년과 1984년 사이 겨울, 어느 토요일 밤에 아내와 저는 우리 집이 있는 유타 주 미드웨이의 산골짜기를 향해 수 킬로미터를 운전해 갔습니다. 그날 밤 기온이 영하 31도였으므로 우리는 집에 아무 탈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별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집을 떠나 솔트레이크시티로 다시 향했습니다. 우리는 …… 간신히 몇 킬로미터를 달렸으나 그만 시동이 꺼져서 꼼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해 가장 가까운 도시를 향해 걸어가는데, 옆으로 차들이 쌍쌍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차 한 대가 섰고, 한 젊은이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 그 친절한 젊은이는 우리를 미드웨이에 있는 집으로 다시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이에게 사례를 하려 했으나 …… 그는 자신은 보이스카우트이며 좋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자, 그는 도울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선교사 연령쯤 되어 보여서 저는 그에게 선교사로 봉사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얼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다음 월요일 아침에 저는 그 젊은이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어서 고맙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권유도 했습니다. ……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 젊은이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아들은 아주 훌륭한 청년이지만, 사는 동안 어떤 영향을 받아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오랜 소망이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남편은 아들의 마음이 바뀌기를 바라며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 그 어머니는 그 추운 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아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 젊은이와 좀 더 대화를 나눈 후, 아내와 저는 그가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로 떠나기 전에 열린 선교사 송별회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추운 12월 밤에 만난 것이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한순간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만남은 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소중한 아들을 위해 드린 진심 어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믿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88쪽.

생각해 볼 질문

-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과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 여러분은 선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생각을 일지에 기록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이 주제에 관한 추가 자료: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러셀 엠 넬슨, “선교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8~21쪽.





선지자의 약속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 사항을 아시므로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가 너무 작거나 사소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염려하십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88쪽.

선교사 연령 기준 변경

2012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발표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모든 합당하고 능력을

갖춘 형제는 …… 19세가 아닌 18세부터 선교 사업에 추천될 수 있[으며] ……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며 능력을 갖추었고 합당한 자매들은 21세가

아닌 19세부터 선교사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4, 5쪽)

학습하기

비교해 보기: 참된 개종

한 명 이상의 연사들이 중요한 주제 몇 가지를 연차 대회에서 말씀했다. 다음은 참된 개종에 관해 다룬 네 연사의 말씀이다. 연차 대회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와 비슷한 주제를 다룬 다른 말씀을 찾아본다.

- “진정으로 개종하면 ……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의식적인 결심이 그에 뒤따릅니다.”¹—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우리는 침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끝까지 그를 섬길 결심을 하[기로](모로나이사 6:3; 강조체 추가) 약속합니다. 이 성약을 지키려면 용기 있는 노력, 헌신, 고결함이 필요합니다.”²—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우리는 우리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이런 개심과 자신감은 근면하고 신중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사안이며, 인생 전반에 걸친 과정입니다.”³—앤 엠 딘,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
- “남을 사랑하고 봉사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구주의 마음과 같이 되려면, 우리의 간증이 마음속에 있는 다른 것들을 넘어서서 가슴 속 깊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⁴—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

1.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주께로 돌아왔고”,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07쪽.
2. 쿠엔틴 엘 쿡,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9쪽.
3. 앤 엠 딘, “나는 그것을 알고, 실천하며, 사랑합니다”,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0쪽.
4. 엠 러셀 벨라드, “열심히 노력하여”,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30쪽.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시청 또는 청취하시려면
conference.lds.org에
접속하십시오.

충분히 온전하도록

미셸 레예스

하나뿐인 팔로 어떻게 기저귀를 갈고, 저녁을 준비하며, 아이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17 세 때 나는 차 사고로 왼쪽 팔을 거의 잃었다. 그 때문에 내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제련자가 주신 이 불은 나에게 속죄의 힘을 특별한 방법으로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다.

현재 내 삶의 전부는 아내와 어머니라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어머니로서 적합한지 의문이 있었다. 하나뿐인 팔로 어떻게 기저귀를 갈고, 저녁을 준비하며, 아이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15년 후, 나는 사랑스러운 다섯 자녀들을 둔 중년의 어머니가 되었다. 나는 잘 적응했고 아이들은 내가 다른 엄마들과 다르다는 것을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팔이 하나라는 것은 장애가 아니라 사랑의 상징이었다. 내 하나뿐인 팔은 아이들이 밤에 울거나 잠들 때 안아 줄 수 있는 위로의 근원이었다. 이 애정은 여러 이유에서 생긴 것이긴 하지만 나는 그것을 비극적인 일에서 선하고 좋은 것을 만들어 내시는 구주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불편한 내 팔이 자녀들에게 그러한 위안을 줄 때 느낀 감미로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엄마가 되면서 육체적인 한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었고, 속죄가 이미 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엄마로서 매일 해야 하는 일들이 때때로 힘들다. 하지만 힘든 시간은 내게 부활의 실제성과 나를 치유할 구주의 능력에 대해 숙고해 볼 이유가 되었다. 신앙을 키우는, 경전 속의 치유 사례들은 내게 특별한 의미를 준다. 아주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는 구주께서 미대륙 백성을 방문하여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부분이다. 나는 자주 구주께서 치유해 주신 사람 중 하나가 되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상상해 본다. 그 내용은 그분의 사랑이 담긴 권유로 시작한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너희에게 저는 자나, 맹인이나, 다리 불편한 자나, 장애인이나 …… 어떻게든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고쳐 주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측은히 여김이요, 나의 심정이 자비로 충만함이라.

…… 이는 너희의 신앙이 내가 너희를 고치기에 족한 줄 내가 앎이니라.

……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시련에 맞서 살아갈 힘

“지상에 있는 동안 치유받지 못하는 고통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세 번이나 ‘육체에 가시’를 거두어 주시도록 간청했습니다. 주님은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고린도후서 12:7, 9) …… 대신 그분은 사도 바울에게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장을 위한 주님의 방법이라면 그 고통들을 극복할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배우길 원하십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구속주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병 고침을 받음”, 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7쪽.



나자, 무리가 다 일제히 그들의 병든 자와 그들의 고난당하는 자와, 그들의 저는 자들과 함께, 또 그들의 맹인들과 함께, 또 그들의 말 못하는 자들과 함께, 또 어떤 식으로든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나아가매, 그들을 데려오는 대로 그들 모두를 고쳐 주시더라.”(제3니파이 17:7~9)

나에게 이 이야기는 경전에 나오는, 가장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 중 하나인 것 같다. 하지만 내 관점은 내가 팔이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의 역할을 받아들이면서 바뀌었다. 나는 한때 내가 부활과, 온전히 됨을 몹시 고대하던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는다. 나는 속죄가 지금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점차 느끼기 시작했다. 치유의 힘이 부활이 일어날 때에나 비로소 시작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온전함은 매일 밤 아이들 중 하나가 내 남은 팔을 잡고서 잠들 때 시작되었다. 이 깨달음은 육체적으로 치유를 받는 기적만큼이나 내게 의미있게 다가왔다. 나는 지금 내게 필요한 만큼 온전해지기로 결심했다. ■

팔이 하나라는 것은 장애가 아니라 사랑의 상징이었다. 내 하나뿐인 팔은 아이들이 밤에 울거나 잠들 때 안아 줄 수 있는 위로의 근원이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칠십인 회장단의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는 2012년 4월 연차 대회 중 “특별한 교훈”이라는 말씀을 전하며 이 질문에 답했다.

“이생에서 영생을 위한 훈련을 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시험과 시련을 겪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 왔으며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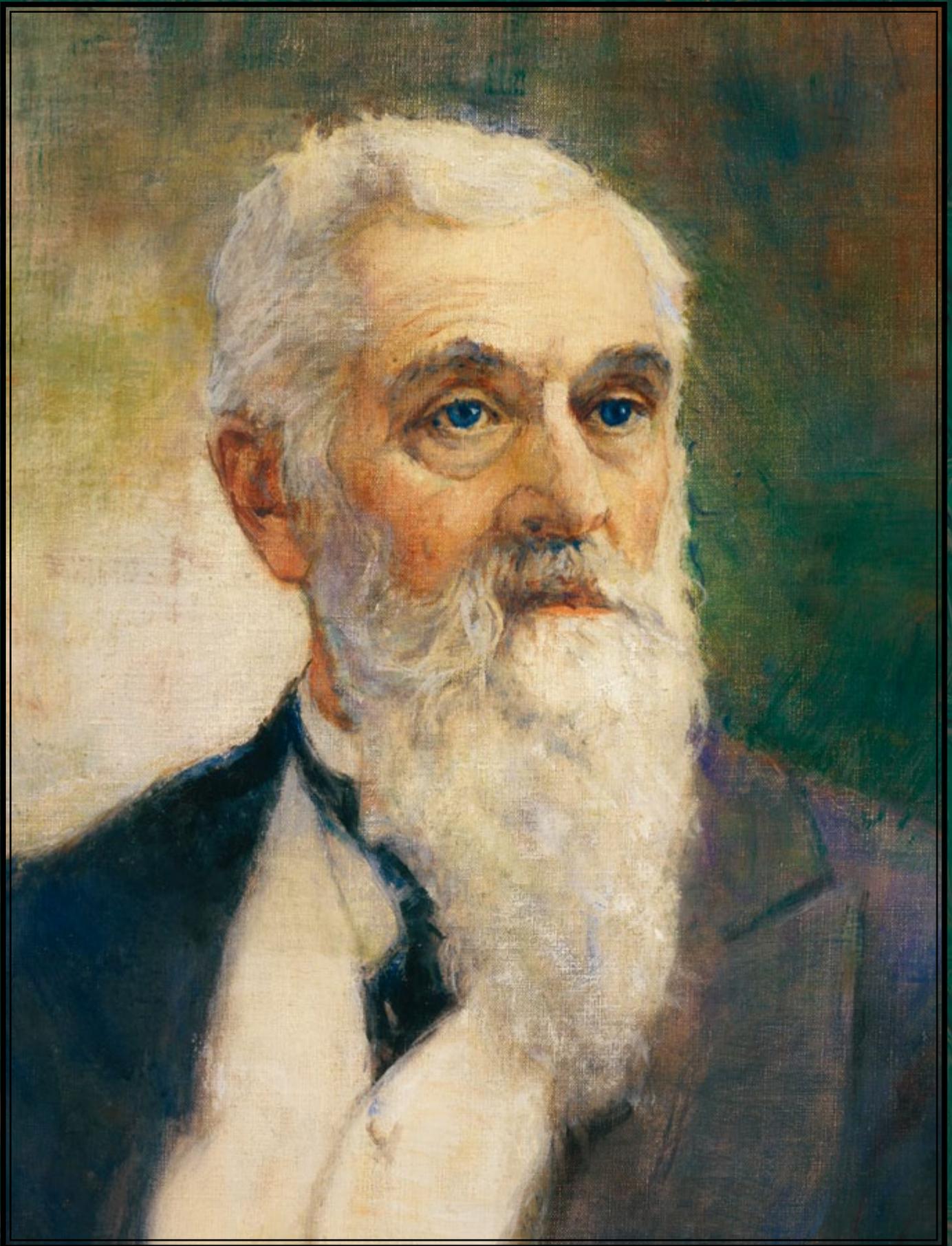
필멸의 삶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솔한 질문 속에서 도무지 해답을 찾기 어려울 때에도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권능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

시련과 역경, 비통함, 장애, 온갖 고통을 겪게 되더라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사랑하시는 구주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18, 27)”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은 시련 중에 구주께서 주시는 위안과 평안을 찾을 수 있는가?



피클, 순무, 그리고 간증:

로렌조 스노우의 삶과 가르침이 주는 영감

올해 로렌조 스노우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서의 그와 그의 권고가 놀라우리만큼 오늘날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예 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5대 회장인 로렌조 스노우의 초상화를 본 적이 있다면 길게 기른 하얀 턱수염과 친절한 얼굴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몇 분간 잠시 그 초상화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스노우 회장의 눈이 피곤하지만 지치지 않고, 세월의 흔적은 보이나 힘과 빛이 가득함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은 스노우 회장이 영감을 받아 십일조에 관해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고,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한 성스러운 경험에 대해서도 읽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가 그 같은 성전 경험을 했는지, 또 그에 따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도 아는가? 그가 십일조의 법에 대해 받은 계시가 궁금하지 않은가?

그의 눈과 얼굴은 어떠한가? 스노우 회장과 만난 후, 다른 교회 목사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강의 힘이, 품모에는 평화의 기도가 서려 있었다. 잔잔하고 깊은 눈 속은 ‘고요한 기도의 분향’이자 영적 힘이 거하는 곳 같았다. …… 나는 ‘거룩한 땅에 서 있구나.’ 하는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한 얼굴을 만든 모험, 시련, 승리, 슬픔, 기쁨, 계시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가?

올해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은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에 대해 공부할 것이다. 스노우 회장의 가르침을 배우고 교회와 집에서 그 가르침을 주제로 토론한다면 단지 오래된 초상화에서 친절하게 보이는 사람 이상으로 그를 알게 될 것이다.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인 그의 가르침이 놀라우리만큼 오늘날에도 적용되며, 그가



약력

로렌조 스노우는 1814년 4월 3일, 미국 오하이오 주 맨추아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인 로제타 스노우와 올리버 스노우는 신앙, 근면, 봉사, 교육에 헌신하는 가정에서 그와 여섯 자녀를 길렀다. 부모의 가르침에서 근간이 되는 원리들은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가 준비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836년 6월, 그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이는 성신의 속삭임과 이미 교회 회원이었던 누이 엘리자의 부드러운 권유 때문이었다. 1년여 채 안 되어 그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향후 12년에 걸쳐 그는 미국의 여러 곳에서 선교 사업을 했으며 후기 성도 개척자 무리 중 하나의 솔트레이크밸리 이주를 이끌기도 했다. 그는 이탈리아, 하와이 제도, 미국 서부에서 헌신과 열정으로 일했던 선교사였다. 사도로 성임된 것은 1849년 2월 12일이다. 여러 교회 역원을 맡았는데, 여기에는 솔트레이크 성전의 첫 번째 회장으로 5년 이상을 봉사한 것도 포함된다. 1898년 10월 10일 교회 회장으로 성별되었다. 그는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1901년 10월 10일 별세했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될 것이다.

흥미를 북돋우기 위해 올해 이 책을 공부하면서 읽게 될 그의 가르침과 일화 몇 가지를 소개한다. 다음 단락에 나오는 장과 쪽수는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연차 대회에서 전한 흥미로운 말씀이 생각날 것이다. 그는 개종 과정을 오이 피클을 만드는 과정에 비유했다.² 베드나 장로는 이런 비유를 든 첫 번째 사도가 아니다. 스노우 회장도 이미 150년 전에 이와 유사한 생각을 나누었다.

“오이를 식초 통에 넣으면 처음 한 시간 동안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12시간이 지나도 그렇습니다. 잘 살펴보면 겨우 껍질에만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절여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침례를 받아 이 교회로 들어온 사람도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곧장 절여질 만큼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 12시간 또는 24시간 동안에는 자기 안에 의와 의무에 관한 율법을 확립하지 못합니다. 식초 속 오이처럼 의로운 영에 흠뻑 젖어 들(때까지) …… 그 사람은 교회에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³

스노우 회장은 개종에 관해 이야기할 때 자신의 경험을 인용했다. 그는 종종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그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침례와 확인을 받은 직후 일어난 일로, 그것은 그가 “의로운 영에 흠뻑 젖어 들(게)” 했다. 이러한 경험은 1, 3, 59, 61, 62쪽에 걸쳐 나온다.

“[어떤] 사람을 불러 다른 사람들을 감리하도록 회장 부름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라고 스노우 회장은 물었다. “영향력을 획득하여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 데 그 영향력을 사용하라고 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그와는 반대로, 신권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스노우 회장은 십일조를 바칠 때 축복이
 뒤따른다고 가르쳤다. 여기와 같은
 사무실(솔트레이크시티, 1880년 대)에서
 십일조를 받았었다. 왼쪽: 몇몇 친구들을
 대접하려고 준비하면서 스노우 회장은
 그의 통나무 집을 밝히기 위해
 순무로 양초 받침을 만들었다.

주어졌을 때와 같은 원리로 그러한 직분에서 희생을 하라고
 부름 받은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감리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 형제들의 주인이
 아닌 종이 되어 그들의 유익과 복리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⁴

교회 지도자로서 스노우 회장은 이 원리를 실천했고 때때로
 창의적으로 그런 일을 해냈다. 예를 들어 그는 순무, 칠파브,
 밀짚을 사용해 고통을 겪는 성도들의 영을 고취시키기도 했다.
 이 이야기는 7장에 나온다. 교회에서의 지도력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읽으려면 18장을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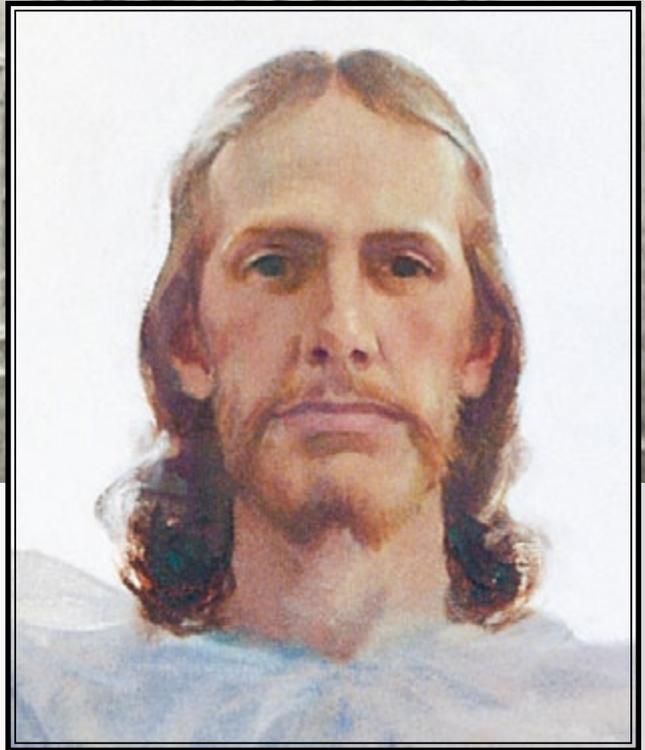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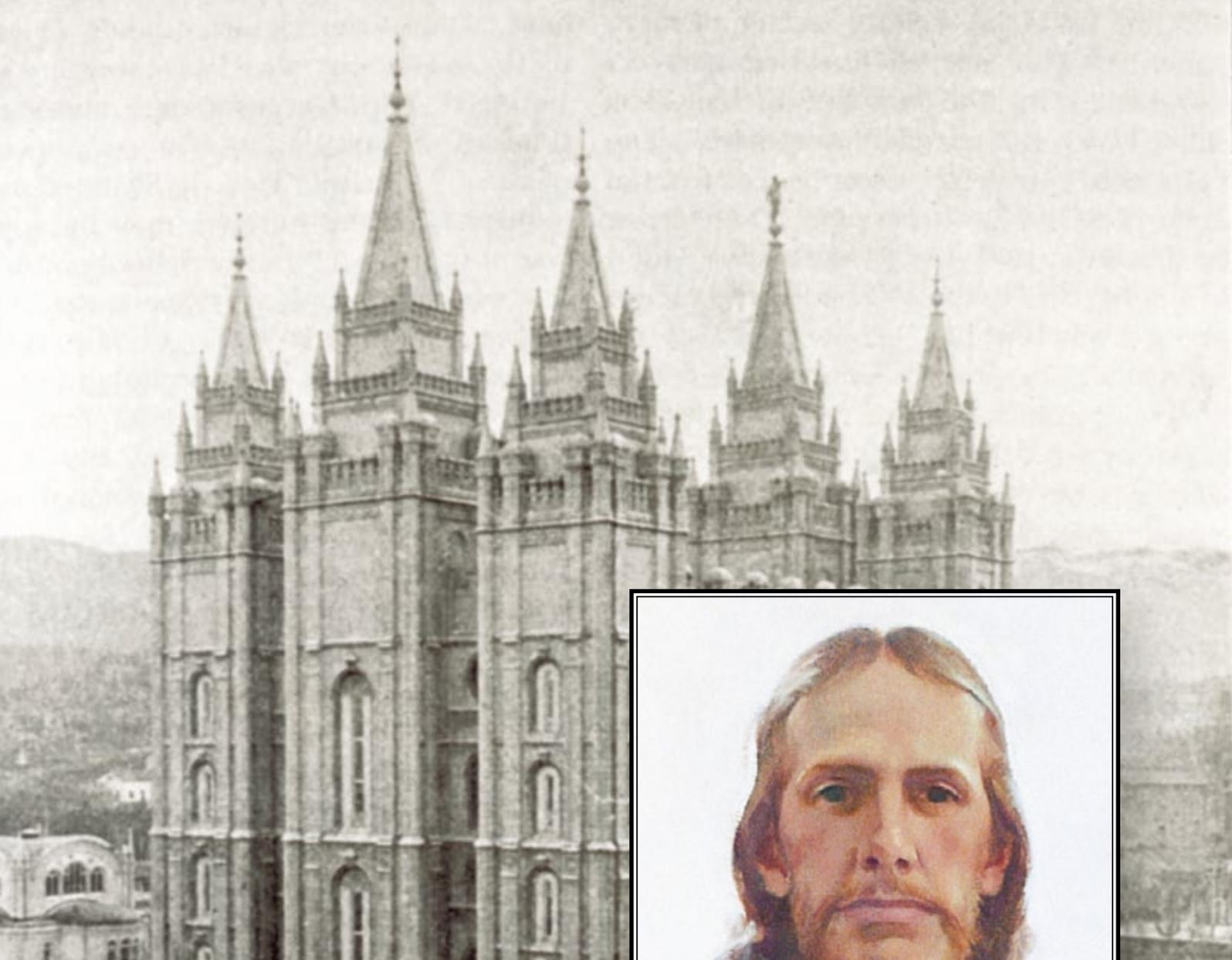
참된 지도자의 속성을 잘 아는 스노우 회장은 강력하고
 창의적이며 효과적인 지도자였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다. “지금
 성취되고 있는, 지상 여러 나라에서 백성을 모으는 이 위대한
 사업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짜낸 생각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⁵ 자신의 85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교회 회원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제가 성취한 일이 무엇이건 간에 그 일은 로렌조 스노우가
 한 것이 아니며, 저를 교회 회장 자리까지 이르게 만든 지난
 일들도 로렌조 스노우가 아닌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느낍니다.”⁶

그는 자신의 성역 기간 동안 이 진리를 가르쳤으나 교회

회장이 되기 바로 직전에 성스럽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를 되새겼다. 그는 1898년 9월 2일, 윌포드 우드럽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 교회의 선임 사도가 되었다. 스스로 이 책임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한 그는 솔트레이크 성전의
 방으로 가 홀로 기도했다. 그는 인도를 간청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느낄 수 없었다. 스노우 회장이 그 방을 떠나 넓은
 복도를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바로 거기서 응답이 왔다. 그의
 앞 바닥에서 약 1미터 떨어진 공중에 부활하신 구주께서
 서 계셨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력으로 어떻게 전진할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이 경험에 대해 더 읽어 보려면 20장을
 참조한다.

스노우 회장은 십일조의 법에 관한 계시를 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1899년에 교회 회원들에게 주어진 이 계시는 담대한
 선언으로 시작한다. “이제 미래를 위해 준비하며 제대로
 된 반석 위에 자기 발을 단단히 붙들어 두고자하는 모든
 후기 성도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완전한 십일조를 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⁷

후기 성도들은 선지자의 권고를 충실히 따랐으며 주님은
 그 결과 그들을 개인적으로, 또 교회 전체에도 축복하셨다. 전



교회 회장이 된 직후, 로렌조 스노우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뵈는 성스러운 경험을 했다.

세계 교회 회원이 십일조의 법에 순종할 때 영적, 현세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그 계시의 영향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계시와 그 계시를 따랐을 때 받은 축복에 관한 경험을 더 읽어 보려면 12장을 참조한다.

모든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스노우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강한 간증을 전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오셔서 길을 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화평과 행복, 승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런 분투를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복음 안에서 보장된 이런 축복과 특권을 결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⁸ 그는 구주의 탄생, 필멸에서 행한 성역, 속죄,

그분의 회복된 교회에 개인적으로 관여한 일, 재림에 대해 간증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더 읽어 보려면 24장을 참조한다.

물론, 이 짧은 기사는 스노우 회장의 삶과 성역의 일부만을 제시할 뿐이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를 공부하면서 그가 선교사로서 처음으로 가르쳤던 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고 깜짝 놀란 이야기, 심한

폭풍우를 헤치며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을 때의 감흥, 로렌조 스노우 자신을 포함해서 네 명을 죽음에서 구한 신권 권능의 예에 관한 일화 등 다른 많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읽게 될 것이다. 단합, 겸손, 성약, 성전 사업, 가족 관계, 온전함을 추구함, 신권, 상호부조회, 복음을 나눌 때 느끼는 기쁨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그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이 기사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와 가르침을 읽고 숙고해 보았다면, 혹은 곧 읽겠다고 결심했다면 스노우 회장이 여러분의 노력에 기뻐할 것임을 확신해도 좋다. 그는 평생 배움을 추구하고 우리는 “열의를 다해 노력”해서 “진리의 원리 안에서 발전하고” “하늘에 관한 지식을 쌓[도록]”⁹ 가르쳤다. 그는 이렇게 촉구했다. “이제 막 지난 하루나 일주일의 우리가 보낸 어느 때보다 좋은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식과 지혜 면에서, 또 선을 행하는 능력 면에서 날마다 조금씩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¹⁰

올해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란다. 이 책을 공부하면 스노우 회장을 직접 대면한 그 선한 목사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친절할 얼굴과 평온한 눈빛 너머를 본다면 여러분이 성스러운 곳에서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로렌조 스노우를 알아서기 아니라 그가 증거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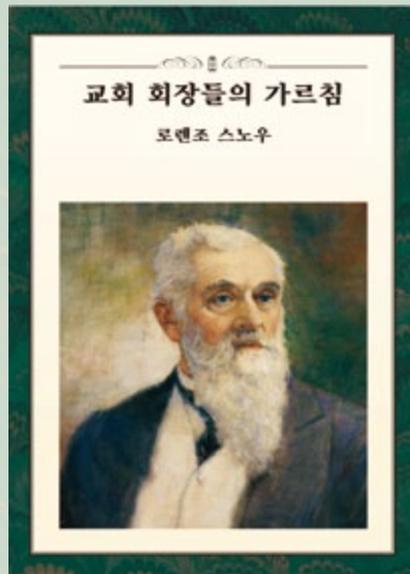
주

1. 프랜시스 목사,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에서 인용(2012), 30쪽.
2.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너희는 거듭 나아 하리라”,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19~22쪽 참조.
3.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 68쪽.
4.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 219쪽.
5.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 153쪽.
6.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 148쪽.
7.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 157쪽.
8.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 280~281쪽.
9.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 64쪽.
10.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 10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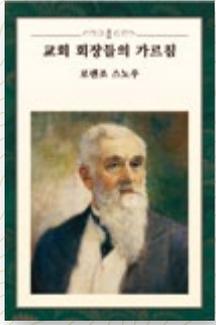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의 특징**

이 책은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소장해 온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시리즈에 더해질 것이다. 현재 이 시리즈로 11권이 출판되었으며 이 책들은 많은 복음 주제에 관해 영감어린 이해력을 선사한다. 다음은 이 책의 주요 내용이다.

- 75개 이상의 복음 주제에 관한 로렌조 스노우의 영감에 찬 말씀.
- 대부분의 회원들에게는 공개된 적이 없는 로렌조 스노우의 일생을 다룬 새로운 예술 작품과 사진.
- 각 단원에는 세 가지의 교수 및 학습 보조 자료가 나오는데, 즉 생각해 볼 질문,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경전 구절, 활발한 반원 참여와 토론으로 이끌어줄 가르침이 들어 있다.
- 회원들이 이 책을 더 잘 학습할 수 있고 가정과 교회에서 영감으로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세 쪽짜리 지침.



이 책은 또한 LDS.org와 mobile.lds.org의 Gospel Library app(영어)에서도 볼 수 있다.



로렌조 스노우

알아보기

크리스토퍼 디 포스

올 해에 상호부조회와 멜기세덱 신권 받은 로렌조 스노우(1814~1901) 회장의 삶과 가르침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의 연령대에서 이 책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분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스노우 회장은 시련과 승리로 가득한 놀라운 삶을 살았다.

복음의 승리자

로렌조 스노우는 젊었을 때 교회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누이인 엘리자(많은 후기 성도 찬송가를 작사하고 제2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한 엘리자 알 스노우)가 열성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과 반대로 그는 처음에는 침례 받을 마음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는 교회의 교리가 매우 흥미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로렌조는 오하이오 주 오벌린에 있는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개신교 목사가 되려고 수련 중이던 학생들에게 교회의 믿음에 대해 종종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아직 침례는 받지 않았지만, 복음을 매우 잘 전했기에 오벌린의 많은 학생이 회복된 교회의 진리가 옳은 것 같다고 인정할 정도였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부터 대단한 선교사였던 로렌조가 침례 받은 후에 더 열성적으로 선교 사업에 전념했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교회 회원이 된 후 몇 년간은 여러 곳에서 전임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처음에는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다음은 미주리 주, 켄터키 주, 일리노이 주에서 차례로 봉사했다. 그는 나중에 영국으로 가서 그곳의 교회를 조직하는 일을 도왔다. 영국에 있는 동안 그는 빅토리아 여왕과

앨버트 공에게 물론경 몇 권을 전달했다. 이후에는 이탈리아, 스위스, 하와이 제도라고 나중에 알려진 곳에서도 선교 사업을 했다.

바다에서의 기적

스노우 장로는 갓 침례 받은 많은 회원과 함께 영국을 떠나 일리노이 주 나부로 돌아갔다. 그들은 모두 스완턴이라는 배를 예약했고 북미로 가는 긴 여정을 준비했다.

스완턴 호의 선장은 자신의 배에 탄 후기 성도들에게 불친절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친근하게 행동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대개 그들과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바다에서 2주가 지난 후 사건이 발생했다. 승무원 한 명이 사고로 심하게 다쳤던 것이다. 모두가 그 승무원이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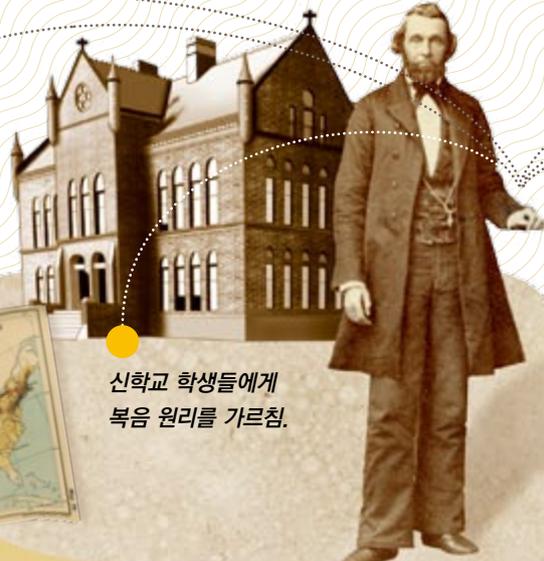


하와이에서 봉사함.

미국의 여러 곳에서 봉사함.



신학교 학생들에게 복음 원리를 가르침.



다음은 교회의 제5대 회장에 대해 여러분이 잘 몰랐던 몇 가지 사실이다.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죽어 가는 승무원을 돌보던 한 신앙심이 깊은 자매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 승무원에게 로렌조 스노우 장로가 축복을 해 주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독일에 있는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했던 그 승무원은 필사적으로 동의했다.

한밤중에 눈을 뜬 스노우 장로는 그 죽어 가는 승무원의 방으로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도착해 보니 거기에 그 배의 선장이 있었다. 선장은 와 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전혀 가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스노우 장로는 선장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노우 장로는 방으로 들어가 승무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신권 축복을 주었다. 스노우 장로가 축복을

마치자마자 승무원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 승무원은 완전히 나았으며 다음날, 자신의 일자리로 돌아갔다.

영혼의 가치

그 승무원이 병 고침을 받은 덕분에 스완턴 호 안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선장은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후기 성도들과 보내기 시작했고 심지어 복음을 공부하고 교회 모임에도 참석했다. 다른 승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감명을 받았다.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승무원들은 사랑을 담아 성도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신권 권능을 통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맛볼 수 있었다. 그 승무원과 많은 다른 승무원들은 이후 침례를 받았다.

더 많은 놀라운 사건들이 로렌조

스노우 회장의 삶에서 일어났다. 따라서 올해에 성인들이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를 공부할 때 여러분도 같이 공부하면 어떨까? 일요일에, 혹은 여유가 있을 때 스노우 회장의 가르침을 읽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가족 복음 토론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이 놀라운 사람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

북미로 돌아가는
항해 중에 승무원을
낚게함.



빅토리아 여왕과 앨버트
공에게 물문경 몇 권을
전달함.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겸손하게 따를 때
세상의 지혜가 가장
가치 있어집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삽니다. 세상에서 가장 방대한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는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엄청난 규모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2012년 현재 위키피디아에 올라 있는 영어 단어는 무려 25억 개 이상이며, 약 284개 언어로 2,200만 개 이상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70개 이상의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에는 언어마다 적어도 10,000개의 글이 올라 있으며 영어 위키피디아만 해도 무려 400만 개 이상의 글이 있습니다.¹

정보의 범람은 2004년에 등장하여 2012년에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이 줄기차게 이용하는 페이스북,² 또한 2005년에 선보여 조회 수가 1억 회 이상인 동영상을 보유한 유튜브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폭발적인 사용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보의 파도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절실하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아는 지혜 말입니다. 수십 년 전의 기독교인인 티 에스 엘리엇이 쓴 이 글귀는 요즘 시대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봄과 가을, 탄생과 죽음의 세상이며!
생각과 행동
끝없는 발명과 끝없는 실험은
움직임의 지식은 가져오나 고요함의 지식은
가져오지 않고
대화의 지식은 가져오나 침묵의 지식은
가져오지 않으며
말의 지식은 가져오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지하니
모든 세상의 지식은 우리의 영적인 지식은
막는구나
우리의 무지는 죽음을 가깝게 하나
죽음에는 가까워져도 하나님 가까이는 가지
못한다
우리는 살아가나 놓쳐버린 삶은 어디 있는가?
지식을 찾으랴 잃어버린 지혜는 어디 있는가?
정보를 구하랴 잃어버린 지식은 어디 있는가?
200년이란 세월은
하나님에게선 멀어지고 덧없는 것만 곁에
두었다³

여러분은 지혜를 얼마나 잘 이해합니까?
어쩌면 결혼을 앞두고 들뜬 어느 젊은 여성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성은 부모님께 신이 나서 말합니다. “이제 결혼하게 되니까 모든 골칫거리는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남편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골칫거리가 시작된다는 건 모를 테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될수록 저는 무한한 지혜의 시작점에서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더 배워야 하는지 깨달으면서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지혜, 특히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는 소망을 키워 가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주는 축복

지혜와 관련한 몇 가지 원리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첫째, 정보와 지식 시대에 사는 우리는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지혜란 여러 측면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어려서 얻은 지혜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옵니다. 한 분야에서 얻은 지혜가 다른 분야에서는 쓸모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지혜는 많은 상황에서 대단히 유용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겸손하게 따를 때 가장 가치 있어집니다.

경전은 두 가지 종류의 지혜, 즉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묘사합니다. 세상의 지혜에는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이 둘 다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세상의 지혜는 이기적이거나 사악한 목적을 위해 지성과 조작이 뒤섞인 부분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경에 나오는 예로는 애플리싸이가 있습니다. 경전에는 “애플리싸이라 하는 어떠한 자[니] 그는 매우 간교한 자요, 참으로 세상의 지혜로는 현명한 자라 …… 많은 백성을 끌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했다고 나오며, 이어서 애플리싸이가 “간악한 자인지라 ……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는 것이 그의 의도였음이라”(엘마서 2:1~2, 4, 강조체 추가)라고 묘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에는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 중에 악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지혜는 아주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지혜는 학습, 명상, 관찰, 근면을 통해 의식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는 매우

귀중하며 우리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선하고 품위 있는 사람들은 필멸의 삶에서 이런 지혜를 경험하고 습득합니다.

여러분은 미국 작가인 마크 트웨인의 이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열네 살 때, 나의 아버지는 너무 무지해서 도저히 곁에 있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내가 스물한 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지난 7년간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알고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관찰하고 사색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저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외할머니인 메리 켈러가 사시는 아이다호 주 프레스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78세였고 쇠약하셨기에 2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셨기에 저는 그분의 경험을 귀 기울여 듣고 배우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유용할 지혜를 터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젊을 때는 좀처럼 알기 어려운 특별한 지혜를 얻게 되면, 살면서 부닥치는 많은 슬픈 경험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를 구하십시오. 사색하고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면서 인생에서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특정한 전문적인 것과 개인적인 추구를 통해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이다호 주 아이다호 폴즈 출신인 드 본 시 해일 박사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일하는 내과 의사입니다. 저는 열대병과 관련한 그분의 지혜와 지식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그 지식에 놀란 게 아니라 여러 정보를 분류하고 비교하여 얻은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지 이해하는 것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에게 그러한 의학적 지혜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로리다 주 탬파에 살던 시절, 제 큰아들이 집에서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아들의 유치원 교사인 주디스 그레이벨 부인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50대인 그분은 어린이들을 무척 잘 다루었습니다.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우리가 젊을 때는 좀처럼 얻기 어려운 특별한 지혜를 갖게 되면, 살면서 부닥치는 많은 슬픈 경험들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언제 칭찬해야 할지, 언제 엄하게 대해야 할지를 아셨습니다. 어린이들을 가르칠 지식도 있었지만, 사실 더 많은 것이 그분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유치원에서 그분의 반에 보내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세상에서 뛰어난 지혜를 보여 줍니다. 그들의 지혜는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사회에서 성공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혜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분야의 지혜가 다른 분야에서도 반드시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레이벨 부인이 열대병을 진단할 수 없듯이 헤일 박사님이 제 아이들의 유치원 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해 주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예속되어 있으며, 그분의 지혜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모든 지혜가 똑같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시편 111:10)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지혜의 시작인 주님을 “마음속 깊이 경외”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와 모든 권능을 가지셨[기]”(모사이야서 4:9)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마음속 깊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완벽하고 순수하며 이타적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대척점에 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이사야 55:8~9)

하나님의 지혜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찾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야고보서 1:5, 강조체 추가).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인 은사입니다. “재물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해 주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예속되어 있으며, 그분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보라,
하나님의 비밀이 너희에게 펼쳐지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부하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6:7, 강조체
추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는 언제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대개 영적인 은사인 지혜는 우리가 정직하고
부지런히 구할 때 조금씩 주어집니다. “내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하리라. 내 교훈에 귀 …… 기울이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지혜를 배울
것임이요,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더 줄
것이니라.”(니파이후서 28:30, 강조체 추가)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시간과 경험,
그리고 신중하고 사려 깊은 명상 후에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⁶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에서 즉각 만족을 느끼는 때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그 근원이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경전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연차 대회 등), 그리고 물론 기도(교리와
성약 8:1~2 참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지혜는
성신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서서히 스며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일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린도전서 2:11,13, 강조체 추가)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할 때 우리는 현 상황의 이면을 보게
됩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영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말하며, 사물을 장차 있을 그대로 말하느니라.”(야곱서 4:13)

하나님의 지혜는 헌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혜와 십일조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지혜가 똑같이
창조되지는 않았다는 점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상충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의 뜻을 굽혀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우리는 필멸의
사명을 띤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고 헌신하는 우리는 어떤
지혜가 더 중요인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 사는 한 고귀한 후기
성도의 경험담을 나누겠습니다. 그 자매님은
십일조와 학비 사이에서 고민했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대학교에서는 …… 부채를 지거나(혹은
학비를 못 낸) 학생은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날은 월급을 받는
목요일이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십일조와 학비를 동시에 내기에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두 달에 한
번 보는 시험은 다음 주에 시작하는데 그 시험을 보지 않으면
그 해 학점은 무효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무척 아프고
슬펏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선하고 의로우며 자신에게 진실하게
생활하는 누구라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다시 그 자매님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매님은 먼저
일요일에 십일조를 냈고, 그다음날인 월요일에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퇴근할 즈음에 제 고용주가 다가와서 그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업무를 주었습니다. …… 갑자기 멈추더니 ‘대학 생활은
어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그 고용주를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묘사했지만, 그 순간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더할 나위 없이 좋죠!’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경전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연차 대회
등), 그리고 물론
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고용주가 나갔는데, 그 후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비서는 “사장님께서서 방금 오늘부터 회사에서 당신의 학비와 책값을 다 대겠다고 하셨습니다. 퇴근 전에 저한테 들러서 비용을 말씀해 주시면 내일 수표를 드릴게요.”⁷라고 말했습니다.

지각력이 뛰어나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여러 번 이러한 시험을 겪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경고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오 악한 자의 저 간교한 계획이여! 오 사람들의 헛됨과 나약함과 어리석음이여! 그들이 [세상의 지혜에서] 학식을 얻으며 자신이 현명하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아는 듯 여겨 하나님의 권고를 옆으로 제쳐놓음이라. 그런즉 그들의 지혜는 어리석음이요, 그것이 그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 그들이 멸망하리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권고에 귀 기울일진대, 학식을 얻음은 좋으니라”(니파이후서 9:28~29, 강조체 추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린도전서 1:20)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고린도전서 3:18~19, 강조체 추가)

문제는 종종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충돌할 때, 그분의 지혜를 우리의 인도 지침으로 삼느냐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암몬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혜[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려 아니하며 지혜가 그들을 다스림을 바라지도

**개인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살펴봅시다. 우리는
정직한 십일조를 내고
후한 헌금을 냄으로써
적절히 돈을 씁니다.**



아니함이다!”(모사이야서 8:20) 하나님의 지혜를 기꺼이 따르려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중국 본토 출신인 제 친구 시에 잉이 떠오릅니다. 그는 커다란 희생을 치르고 교회에 들어왔고 뉴욕에서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또,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매우 충명하지만 어머니로서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로 선택한 제 두 딸을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회사가 불법 탈세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수입이 좋은 직장임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남미 출신의 한 친구도 떠오릅니다. 이들은 모두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의 지혜는 유능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지나치게 똑똑하여 오히려 가르침을 받기 힘든 남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무지한 가운데 죽을 것이며, 부활할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⁸

지혜와 재정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개인 재정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더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만, 과거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세상은 우리가 무언가 원하면 가져야 하며 기다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빚을 지면 당장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출 혹은 주택 담보 대출로 부채를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 심지어 교육을 담보로 부채를 질 수 있습니다. 가치는 언제나 올라갈 것이며 우리는 부유해질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금 상환 액수가 부채의 크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대출금 상환을 위해 내는 돈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설명 부채를 모두 상환할 수 없게 되더라도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가르친 개인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봅시다. 개인 재정의 기반은 바로 자립과 일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십일조를 내고 후한 헌금을 냄으로써 적절히 돈을 씁니다. 번 것보다 덜 쓰며 살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분해 냅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부채를 피합니다. 우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살며 조금씩 저축을 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재정적 의무를 다합니다.

약 14년 전에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집에 질서를 세워야 할 때가 왔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수입을 다 써 가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빛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폭풍우 치는 날씨를 맞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⁹

몇 해 전에 우리의 번영이 절정에 달했을 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제의 사치품이 오늘의 필수품이 되었다는 사고방식을 피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필수품으로 만들지 않는 한 필수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 부채를 진 후에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아프거나 무력하게 되고, 회사가 망하거나 구조 조정으로 실직할 수도 있으며, 자연 재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큰 금액의 부채에 대한 상환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채가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위협하는 다모클레스의 검이 됩니다.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할 것을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자신이 버는 것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지불 능력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한다면 불필요한 부채를 갚을 방법에 대해 계속 고민할 때보다 더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¹⁰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세상의 지혜와 충돌하는지 보이십니까? 모든 것이 번영할 때 명확히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지혜와 관련해
지금 당장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회원들은 조금 더 경청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당면한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중앙에 세로로 줄을 하나 그으십시오. 왼쪽에는 세상의 지혜를,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열거해 보십시오.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들을 적어 보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 일어날 일들이 나오는 교리와 성약 45편에서 주님은 열 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슬기로우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자기들의 인도자로 삼아 속임을 받지 아니한 자는—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찍혀 불 속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그 날을 견디리라”(교리와 성약 45:57)

우리 모두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므로 직장을 찾고 경력을 쌓고 돈을 벌 계획을 세울 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고 풍요로운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혜와 관련해 지금 당장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2009년 4월 10일,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에서 한 졸업식 축사. 영어로 된 전문은 <http://web.byui.edu/DevotionalsAndSpeeches>에서 볼 수 있다.

주

1. Andrew Lih, *The Wikipedia Revolution*(2009), xv-xvi 참조. 또한 http://en.wikipedia.org/wiki/Wikipedia:Size_comparisons: <http://wikimediafoundation.org/wiki/FAQ/en>: http://en.wikipedia.org/wiki/History_of_Wikipedia 참조.
2. Ramona Emerson, “Facebook Users Expected to Pass 1 Billion in August: iCrossing,” *The Huffington Post*, Jan. 14, 2012, www.huffingtonpost.com/2012/01/13/facebook-users-1-billion-icrossing_n_1204948.html.
3. “Choruses from ‘The Rock,’” in *T. S. Eliot: The Complete Poems and Plays, 1909-1950*(1980), 96.
4. *Mark Twain Laughing: Humorous Anecdotes by and about Samuel L. Clemens*, ed. P. M. Zall(1985), xxii.
5. 매리온 지 롬니, “지식을 지혜로 전환시킴, 성도의 빛, 1983년 11월호 참조.
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67쪽.
7. 고든 비 헝클리, “우리는 신앙으로 생활합니다”,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81~82쪽.
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2쪽.
9. 고든 비 헝클리, “청남과 성인 형제들에게”,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53쪽.
10. 토마스 에스 몬슨, “신앙에 충실함”,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19~20쪽.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중앙에 세로로 줄을 하나 그으십시오. 세상의 지혜를 왼쪽에다 열거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오른쪽에다 열거하십시오.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들을 적어 보십시오.

가정에서 나누는 가르침이 의미 있어지도록

자녀에게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는 네 가지
방법.

대런 이 슈미트

되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의 대답이 특히 놀라웠다. 아이들은 이렇게 말했다. “싫어요, 아빠. 앞마당에 농구대가 있잖아요. 아빠랑 이웃 사람들이랑 농구시합을 할 때가 더 좋아요. 더 많이 공을 패스받을 수 있잖아요!”

나의 여덟 자녀를 가르치는 일은 힘들지만 값진 일이다. “가정은 자녀가 삶의 교훈을 가장 먼저 배우는 곳이며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는 곳”임을 아는 우리 부부는 온 힘을 다해 자녀들이 그런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왔다. 그때 도움이 된 몇 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다.

가장 좋은 것을 행한다

아이들이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해졌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셨다. “그저 어떤 것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활에서 우선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했다. “부모는 가족 기도, 가족 경전 공부, 가정의 밤, 소중한 단합의 기회, 가족을 하나로 묶어 주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에 자녀의 가치관을 심어 줄 수 있는 개별적인 일대일 시간을 가지려고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하는 일을 통해 복음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합니다.”²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 좋은 권고가 되었다. 우리 부부는 자녀의 외부 활동들에 대해 숙고하고 기도하면서 예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내가 자기들의 농구팀 감독으로 참여해도

경전 내용을 공부하고 실천한다

경전을 읽는 것과 공부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고대 선지자 여호수아는 우리가 “주야로 ……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써]”(여호수아 1:8, 강조체 첨가) 경전을 확실히 공부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경전 공부를 할 때 자녀들에게 특정 질문들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준 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도록]” 권유할 때 우리는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루는 밤에 바깥에서 후식을 먹으며 물몬경에 나오는 니파이인의 타락에 관해 읽고 있었다. 나는 자녀들에게 왜 니파이인이 그토록 사악해졌는지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섯 살 난 셀레스트는 니파이인과 레이맨인이 매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모두 니파이인이 타락한 것은 기도하는 것을 잊는데다가, 겉보기에 대수롭지 않은 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서였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때 나는 자녀들에게 더 깊이 생각하고 느끼며 기도하도록 권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음날, 나는 아이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기회를 통해 아이들은 자기의 경험을 나누었고,



더 나아가 나도 기도에 대한 간증을 나눌 수 있었다. 가족 경전 공부나 언제나 잘 된 것은 아니지만 함께 토론을 하고, 경전을 공부하는 한 방법으로 경전에 따라 생활하도록 권유했을 때 경전은 더욱더 의미를 띠게 되었다.

자녀들이 책임을 지도록 돕는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임무를 주고 스스로 세세히 파악하게 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 가족 결정을 내릴 때 동참시키자 아이들은 더 활발하게 참여했다. 또한 주인 의식과 책임 의식이 커졌으며, 그 덕분에 아이들은 “자신의 자유의사로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하는]”(교리와 성약 58:27) 법을 터득했다. 자녀가 더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데 유용했던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경전 공부
시간에 자녀들에게
특정 질문들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준 뒤 그에 따라
행하도록 권유할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

- 가정의 밤을 위해 자녀들이 직접 선택하여 공과, 경전, 재능을 준비하도록 돕는다.
- 가족 경전 공부 시간에 가족이 부를 찬송가를 정하게 하고 한 자녀에게 기도하도록 권한다.
- 가족 여행을 계획할 때 그 일부분을 자녀들이 계획하고 책임지게 한다.
- 재정 관련 문제에 관한 가족 평의회를 열고 구매 결정을 내릴 때 자녀들이 참여하게 한다.
- 특정한 일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한 주간 그 일을 맡게 한다.
- 매달 가족 봉사 계획을 세우고 어떤 가족을 도울지 결정하게 한다.
-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일요일에 누구를 방문할지를 정하게 한다.

- 그달의 특정한 날 저녁에 할 가족 활동을 선택하게 한다.

양처럼 돌본다

우리 부부는 기도나 경전 공부를 위해 마치 양치기가 양을 우리에게 몰아넣듯 아이들을 다룬 적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목자로서 우리의 어린 양들을 돌볼 때에만 감미로운 영을 느꼈다. 만약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목자로서 돌볼 순간을 십사리 놓쳐 버리게 된다.

그러한 순간이 아이들을 침대에 재우려고 할 때 온 적이 있다. 한 아이가 “아빠는 어떤 유혹을 느껴요?”라고 묻은 것이다.

나는 그 질문에 깜짝 놀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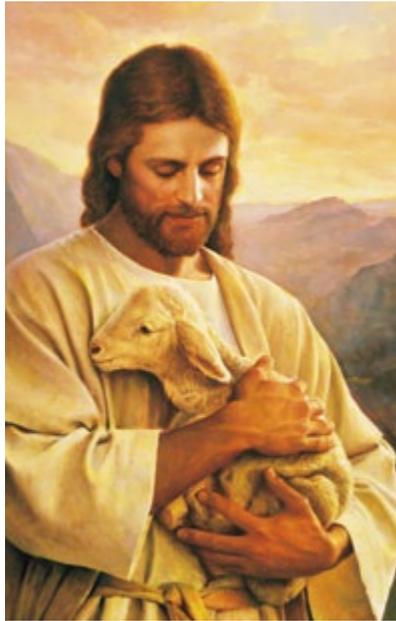
아들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어떤 것이 아빠를 유혹하는지 궁금했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이 순간이 가르침을 줄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알았지만, 유난히 그날은 길고 힘들었기에 심신이 지쳐 있었다. 특히 아이들이 다음날 등교해야 하는 평일 저녁에, 그것도 것처럼 밤늦은 시간에 두 사내아이와 심오한 대화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우물가 옆에 계셨던 구주가 떠올랐다. 48킬로미터 혹은 그 이상을 걸어 지쳐 계셨을 텐데도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시간을 내어 가르치셨다.(요한복음 4장 참조) 나는 이때가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했기에 침대에 앉았다. 그리고 유혹받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긴 침묵이 흘렀고 우리는 서로 대화하며 경청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사탄과 대면한 구주(마태복음 4장) 이야기를 들려 주었고 유혹을 뿌리칠 때 오는 축복에 대해 간증했다.

그 시간은 부모로서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다. 평상시보다 좀 늦게 잠자리에 들었지만, 내가 느낀 기쁨은 조금 놓쳐 버린 수면 시간보다 훨씬 더 가치 있었다.

“가장 다급한 기회 중 하나는 자녀가 진지하게 질문할 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녀들이 언제나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들으려 하는 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엘 에반즈(1896~1971) 장로님의 말씀이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자녀의 상황, 자녀의 시간에 맞추어야 합니다. …… 자녀들이 사소한 질문을 할 정도로 우리를 신뢰한다면, 나중에 더 중대한 질문을 할 정도로 우리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³

주께서 선택하셨고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는 책임은 막중하다. 부모로서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나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님의 말씀을 떠올리곤 한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베들레헴 하늘에 나타난 그 별을 수천 년 전에 그 정확한 궤도에 두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똑같은 관심을 인간 궤도에 놓인 우리 각자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밝혀서 그 빛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 뿐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⁴

이 말씀은 낙담할 때 나를 고양시킨다. 우리의 자녀가 어떤 이유로 우리의 “궤도”에 속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것을 앎으로써 우리 부부는 부모가 지녀야 하는 능력에 관해 자신감을 얻었다.

함께 복음을 공부하고 자녀가 책임을 지도록 도우며 이렇게 소중한, 가르칠 기회를 놓치지 않으므로써 우리 모두의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기원한다. ■

주

1. David O. McKay, in *Family Home Evening Manual*(1968), iii.
2. 닐 에이치 옥스,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04, 105쪽.
3. Richard L. Evans, “The Spoken Word,” *Ensign*, May 1971, 12.
4. Neal A. Maxwell, *That My Family Should Partake*(1974), 86.



교육의 가치

교육은 복음에서, 또한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과 가족을 보살피도록 준비하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¹ 칠십인인 크레이그 에이 카든 장로는 이번 호 54~55쪽에서 교육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한다.

“점차 복잡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교육은 삶에서 추구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대개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현세적인 보상을 받을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식을 쌓는 것에 있는 더 큰 가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는 이렇게 나온다. “교육에는 영적인 배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전을 연구하고 후기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공부하십시오.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에 참여하십시오. 평생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 배우십시오. 영적인 배움을 통해 여러분은 인생에서 부딪히는 난관을 헤쳐 나갈 답을 찾고 성신을 동반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²

청소년을 가르치기 위한 제언

-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교육 부분을 읽어 본다. 학교에서, 그리고 복음 공부를 하면서 했던 긍정적인 경험을 나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청소년들과 이 표준에 관해 토론하고 그들이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

-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과 관심사에 따라 직업 및 교육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준비 절차를 파악하도록 돕는다.
- 교육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가정의 밤을 계획한다.(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와 크리스틴 엠 옥스 자매의 “배움과 후기 성도”, 리아호나, 2009년 4월호, 26~31쪽 기사가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 youth.lds.org에서 청소년 메뉴 하단에 있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클릭한다. 그러면 교육에 대한 경전 구절, 동영상(예를 들어 “윈드서핑을 할까? 아니면 세미나리를 갈까?” 등을 볼 수 있다), 물론 채널 라디오 프로그램, 질의응답,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을 비롯해 여러 기사를 볼 수 있다.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한 제언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은 재미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 이번 호 기사 중에는 “읽을 수 있을 때까지”(66쪽)가 있다. 이 이야기에는 난독증이 있어서 큰 소리로 읽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녀와 초등학교에서 그 소녀가 잘 해내도록 아이들이 어떻게 격려했는지가 묘사되어

배움에 관한 경전 구절

잠언 4:7

니파이후서 9:29

앨마서 37:35

교리와 성약 88:77~80

있다. 이 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읽어 주고 다음 질문을 하며 함께 이야기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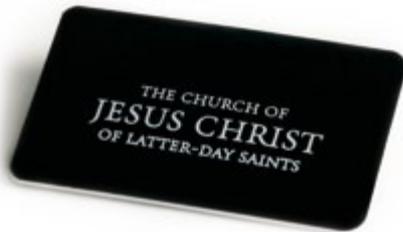
- 메리는 뭔가 어려운 것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느꼈는가? 어떤 일이 어렵더라도 계속 배우는 것은 왜 중요한가?
- 다른 어린이들은 메리를 돕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다른 사람들이 집, 교회, 학교에서 배우도록 돕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주

1.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9쪽 참조.
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10쪽.



청녀와 선교 사업 결정



20 12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며 능력을 갖추었고 합당한 자매들은 21세가 아닌 19세부터 선교사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젊은 여성들은 “청년 남성들 같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선교사로서 귀중한 공헌을 [하며]” “우리는 여러분의 봉사도 환영합니다.”라고 덧붙였다.¹

자매는 선교사로 봉사할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영의 인도를 받아 자신에게 옳은 길을 결정했던 자매들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잃어버린 연결 고리

내가 어렸을 때 누군가 나에게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냐고 물었다면 나는 아니요라고 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었는데, 아마 언니, 오빠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지켜본 것이 일부분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선교 사업을 하겠다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것은 아니었다.

스물한 살이 되었을 때, 선교 사업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지만 한 번도 진지하게 기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 내 느낌을 들으신 어머니는 선교 사업을 고려해 보라고 하셨다. 어머니도 내 나이 때 나와 똑같은 느낌을 느끼셨다고 했다. 어머니에게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답이 되었기에 어쩌면 나의 답도 그것일지 모를 일이었다.

나는 선교 사업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 두려웠다. 선교

이 여성들은
전임 선교사
봉사와 관련한
선지자의
권고를 어떻게
적용했을까?

사업을 고려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내가 그렇게 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안락한 생활을 뒤로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내 생각에 나는 복음을 가르칠 만큼 잘 알지도 못했다. 하지만 목적을 두고 기도하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분은 내가 선교 사업을 하길 바라신다는 응답을 받은 것이었다.

응답을 받은 후에 생겨난 자신감이 참 놀라웠다. 더는 초조하거나 부적합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복음을 나누게 되어 신이 났으며 선교사 추천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곧 나는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 선교부로 부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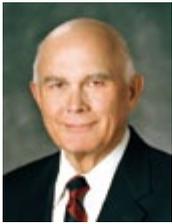
레베카 켈러 몬슨

선교사로서 살아가기

내가 열일곱 살이 되자 사람들은 선교사로 나갈 것이냐고 묻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기에 계속 대답을 피했다.

하지만 스물한 살 생일이 다가오면서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축복사의 축복문을 읽고, 부모님과 대화도 하고, 기도도 드렸다.

하지만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소망이 생기지는 않았다. 봉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의 권고를 생각했다. 그분은 자매 선교사들을 환영하긴 하지만 “선교 사업을 할 의무는 없다.”²고 말씀하셨다. 나는 또한 교리와 성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계시의 영

“우리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리게 될 때……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도를 받게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Elder Dallin H. Oaks of the Quorum of the Twelve Apostles, “Revelation,” in *Brigham Young University 1981-82 Fireside and Devotional Speeches*(1982), 26.

소망이 있을진대, 너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느니라”(4:3)라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이 구절은 선교 사업을 가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주님께 기도로 내 결정에 대해 간구했을 때 나는 평화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지 않아도 선교사가 되는 방법이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 그 이후 나는 간증을 나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다. 주님의 부드러운 자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가정 방문을 하면서, 혹은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을 하면서 말이다. 나는 복음대로 살고 영의 속삭임을 따름으로써 선교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에이미 사이먼

훌륭한 용기

2010년 초, 몇몇 시련에 처해 있던 나는 마음을 비우려고 산책하러 나갔다. 산책하면서 나는 과거를 염려하지 말라는 영의 음성을 느꼈다. 영은 내게 오히려 미래를 생각하라고 속삭였다. 학업을 마치려는 목표를 점검하기 시작하면서 선교사로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예전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봉사하고 싶은 열의가 생기고, 설레는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큰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후 몇 달 동안 선교사로 나가라는 속삭임이 여러 번 들렸다. 그러한 느낌이 올 때 똑같은 열의와 설레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와 동시에 의심과 두려움도 느꼈다. 나는 자매들의 경우 본인이 소망하면 선교 사업을 나가라고 하지만 꼭 그렇게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는 동안 나는 신권 축복을 받았으며 축복에서 주님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기뻐하시리라는 말을 들었다.

그다음 해 여름에 나는 귀한 선교사와 방을 함께 쓰게 되었다. 그 자매님은 자신도 선교



사업 전뿐만 아니라 심지어 봉사하겠다고 결정한 후까지도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해 주었다. 자매님은 의심과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은 영의 속삭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디모데후서 1:7 참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영으로 감화되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 선교 사업 중인 친구가 보낸 편지를 읽었다. 그 편지에서 친구는 여호수아 1장 9절을 읽으라고 권유했고, 영은 내게 그 구절을 펴게 했다.

그 말씀은 내 영혼을 꿰뚫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나는 마치 주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내가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음을 알았다.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다.

한 달 뒤, 나는 여호수아 1장 9절을 선교부의 주제로 삼는 필리핀 일로일로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크리스틴 니콜 대너

다른 선교 사업

나는 살아오면서 계속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것을 계획해 왔다. 하지만 브리검 영 대학교(미국 유타)에 입학하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선교 사업을 가야 할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나는 스물한 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일 년 내내 하나님 아버지께 선교 사업을 나가야 하는지를 여쭙었다. 그때 한 종교학



교수님이 하신 “주님은 주차된 차를 운전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 놓았다. 나는 행동하기로 했다.

나는 추천서를 제출하고 부름을 받았으며, 선교사용 옷도 사고, 유타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우리 집까지 자가용으로 이동하면서 선교 사업 준비를 위해 간곡하게 기도를 드리고 공부하고 금식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돌아간 후, 학교에서 만난 한 청년이 나를 만나러 비행기를 타고 왔고 우리는 우리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내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고 다시 간구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 나를 신뢰하실 것이라는 느낌만 계속해서 받았다. 나는 책임의 중압감을 느꼈으나 신앙 가운데 선택할 때 주님이 내 결정을 지지하시리라는 감미로운 확신도 들었다.

떠나기 10일 전쯤, 나는 청혼을 받았다. 나는 혼자서 생각할 시간을 보내려고 선교 사업을 미루었다. 약혼을 결정했을 때, 영은 나와 내 약혼자에게 그 결정이 옳다는 확신을 주었다.

나는 전임 선교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선교 사업을 준비하면서 내 삶이 바뀌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내와 어머니로서 맡을 임무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캐시 랜달

일생의 경험

나는 어린 나이에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과 사랑으로 축복받았다. 하지만 선교 사업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 확신이 들었던 때는 생각나지 않는다. 그냥 항상 선교 사업을 하리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었다. 나는 일찍이 선교사로 나갈 만한 사람이 되도록 살아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선교사 추천서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금식하고 기도했으며 성전에 갔다. 감독님과 함께 준비하면서 나는 살아오면서 선교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느꼈던 평화를 계속 느꼈다.

그 과정은 때때로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학업과 일이 더 버거워지기도 했다. 나는 가족을 떠나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친구들이 모두 다 결혼하는 것만 같았다.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 내가 없는 동안

계속 변화하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두렵기까지 했다.

선교 사업을 하려는 결정에 확신을 줄 단 하나의 영적인 경험도 없었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때 의구심이 너무 쉽게 들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칠레 산티아고 동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은 후, 떠나기 전에 벌써 내 선교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게 축복해 주셨다. 나는 이제 선교 사업이 내가 내린 훌륭한 결정이었음을 증명하는 일생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

마들렌 베일리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대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4~5쪽.
2. Gordon B. Hinckley, “To the Bishops of the Church,” *Worldwide Leadership Training Meeting*, June 2004, 27.

질의응답

모 든 후기 성도가 선교사로 봉사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 모든 선교사 봉사는 자원하는 것이다. 젊은 남성들은 봉사하도록 권장받으며, 젊은 여성들의 봉사 역시 환영한다. 그리고 연로한 사람들, 기혼자들도 능력을 갖추었다면 봉사하도록 권한다. 젊은 청년은 18세에 봉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2년간 봉사하게 된다. 젊은 여성은 19세에 시작하며 18개월간 봉사한다. 은퇴한 연로한 사람들과 기혼자들은 6~23개월에 걸쳐 다양한 임무를 띠고 봉사할 수 있다.

교회 회원들은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마태복음 28:19)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들과 주님께 사랑을 보이는 것을 특권으로 여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mormon.org/faq에 가서 선교사에 대한 주제를 클릭한다.

연 로한 선교사로 봉사할
기회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신권 지도자를
찾아가거나 [lds.org/service/
missionary-service](http://lds.org/service/missionary-service)에
접속한다.

어떤 선교 사업이



최고일까?

여러분의 상황에 관계없이 연로한 선교사로 봉사할 기회는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

	전임 선교 사업	교회 봉사 선교 사업	장기간 일하는 자원봉사자
누가 봉사할 수 있는가?	중장년 이상의 부부, 중장년 이상의 자매	중장년 이상의 부부, 중장년 이상의 형제, 자매	누구나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 회원이어야 합니까?	예	예	아니오
봉사할 수 있는 시간	한 주에 32시간 이상	한 주에 8~32시간	한 주에 8시간 미만
봉사 기간	6~23개월	6~24개월 (스테인크 회장의 승인을 받으면 더 오래 봉사할 수 있음)	기간에 상관없음
직업 상태	일반적으로 퇴직한 상태	퇴직하거나 아직 일하고 있을 수 있음	퇴직하거나 아직 일하고 있을 수 있음
지역	집에서 떨어져서	집과 가까운 곳 혹은 집에서	집에서
재정	부름 받은 선교 사업을 행하기에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함. 주거비(부부의 경우 매달 1,400달러), 의료 및 치아 보험, 선교부 내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개인 비용 등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함.	부름 받은 선교 사업을 행하기에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함. 주거비, 의료 및 치아 보험, 선교부 내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개인 비용 등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함.	자신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함

빛을 나누어라

미 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서는
 흔치 않게 천둥, 번개, 폭우와
 불별더위가 기승을 부린 날이 있었다.
 나는 에어컨을 틀 집에서 쉬며
 영화나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쉼털에게
 전화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전화해 보니 쉼털의 집은 아침부터
 정전이었다고 했다. 쉼털은 냉동식품이
 다 녹고 우유가 상할까 봐 걱정이었다.

**어둠 속에서 있으면서 나는 종종 내가 남들이 암흑 가운데 앉아 있을 때 길
 반대편에서 복음의 빛을 즐기는 사람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쉼털의 식료품을 우리 집
 냉장고로 옮겨두었다.

다음날 저녁, 우리는 쉼털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쉼털의 집이 있는 쪽은 모두
 검검했지만 그 반대편 집들은 정전이
 되지 않았다. 특히 한 집에 눈길이 갔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집은 불빛이
 찬란했고 사람들은 현관에 앉아서
 웃고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이후 여러 날 동안 나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길

한쪽은 완전히 암흑에 휩싸였는데, 그
 반대쪽은 불빛이 환했던 것이다. 어둠
 속에 앉아 있던 사람들과 빛 속에 있던
 사람들이 확연히 대조되었다.

그 장면 때문에 남들이 암흑 속에
 앉아 있을 때 나는 종종 길 반대편에서
 복음의 빛을 즐기는 사람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작 다른
 사람들과는 복음의 빛을 나누지
 않으면서 몇몇 교회 친구들과는 현관에
 앉아 편안히 복음의 빛을 즐기는 내
 모습을 그려 보았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빛, 즉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태어난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복음을 나눔으로써 그 빛을 더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보라, 사람이 촛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에 두느냐? 아니라, 오히려 촛대 위에 두나니, 이에 그것이 집안에 있는 모두에게 비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빛을 이 백성 앞에 비취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제3니파이 12:15~16)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 특히 영적인 암흑 속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간증으로 빛을 비출 책임이 있다. 이 경험 후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안락한 현관을 벗어나 암흑 속에 있는 이웃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
돌로레스 소비에스키, 미국 캘리포니아

첫번째 시현에 대한 나의 첫 번째 기도

침례를 결심한 이유는 선교사 토론을 하고 있을 때 내 문제 몇 가지가 해결되어서였지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 혹은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에 대해 기도해 보고 간증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선교사들은 나더러 이런 것들에 대해 기도해 보라고 권했으나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그냥 선교사들이 가르친 것을 믿었다.

침례 받고 3년이 지났을 무렵, 한 자매님이 예배당 연단에서 몰몬경과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을 나누었다. 자매님은 모두에게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했다. “우리는 몰몬경의 참됨과 조셉 스미스의 경험에 대해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나는 ‘이런 것에 대해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았지만 기도해야 하고, 또 그렇게할 거야.’ 하고

생각했다.

나는 당시에 신앙이 약해져 있었고 경전에 대한 간증 또한 크지 않았으므로 이것을 실천해봐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받았다. 그날 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조셉 스미스와 몰몬경의 참됨에 대해 기도했다.

처음 기도했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실망하지 않고 조셉 스미스—역사 1장 14~17절을 폼뒀다. 거기에는 조셉이 어떻게 숲 속으로 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했는지가 설명되어 있었다.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점차 내려와 이윽고 내게 임하였다.

그 빛기둥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 풀러났음을 깨달았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 두 분[을] …… 보았다.”

이 구절을 읽자 마치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이내 나는 조셉 스미스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몰몬경을 번역하도록 하셨기에 우리가 몰몬경을 갖게 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번째 시현의 참됨에 대해 이러한 증거를 보여 주신 것을 감사드린다. 복음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내 구속주를 알지 못했을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충분한 복음이 참되며 끝까지 충실하게 견딜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음을 안다.

■
징주앙 쉐, 대만



저도 축복받을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내 가정 복음 교육 대상자인 쉬라프 형제님과 함께 병원에 가서 수술을 앞둔 쉬라프 자매님에게 신권 축복을 한 적이 있다. 쉬라프 자매님은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장기 입원 중인 암 환자 애니 레더와 병실을 함께 쓰셨다.

나는 축복을 주기 전에 두 병원 침상 사이를 가리는 커튼을 내리려고 손을 뻗다가 멈추었다. 애니를 배제하고 싶지 않았기에 나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설명했고 우리가 축복하는 것을 보고 싶은지 물어보았다. 애니는 보고 싶다고 말했다. 세상을 떠난 애니의

남편은 다른 교회의 목사였으므로 그녀는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었다. 애니는 쉬라프 형제님과 내가 축복하는 것을 들었다.

며칠 후, 쉬라프 자매님이 퇴원하기 전에 애니는 자신도 신권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왔다. 쉬라프 형제와 나는 기쁘게 병원에 가서 그녀를 축복했다. 애니는 암에서 완쾌되지는 않았지만, 건강이 크게 호전되었다.

애니가 복음을 더 배우고 싶어했기에 나는 선교사들에게 병원에 가서 애니를 가르치도록 부탁했다. 그녀는 열린 마음으로 복음 메시지를 들었고 침례를

결심했다. 침례를 받은 후부터 매주 우리는 병원에 갔고, 애니를 휠체어에 태워서 교회에 데려갔다.

애니는 아파서 거동이 불편했지만, 곧 주님을 위해 봉사할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냈다. 우리는 애니에게 타자기를 주었고 그녀는 병원에서 매일 여러 시간 동안 가족 역사 일에 몰두했다. 애니는 예상보다 3년을 더 살았고, 죽기 전까지 성전 사업을 위해 가족들 수백 명의 이름을 준비했다.

애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쉬라프 자매님은 애니의 수많은 할머니들을 위해 대리로 성전 사업을 수행했다.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애니가 그녀의 가족 중에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다. 살아 있는 가족들은 애니가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많은 조상이 그들을 위해 행해진 대리 의식에 고마워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신권 축복을 본 이후 그녀의 가슴 속에 심어진 씨앗 하나가 싹이 터서 하나님 아버지의 수많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 ■

아트 크레이터, 미국 뉴욕

나는 축복을 주기 전에 두 병원 침상 사이를 가리는 커튼을 내리려고 손을 뻗다가 애니를 배제하고 싶지 않았기에 멈추었다.



나의 생일 소원

18 세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나는 그 무엇보다도 감미로운 열매를 맛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느낀 기쁨도 컸지만, 길을 잃고 헤매는 가족들이 생각났다. 가족 중에 혼자서만 교회 회원이라는 것에 큰 슬픔을 느꼈으나 그들이 이 진리를 어떻게 듣고 받아들일도록 도와야 할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여러 방법을 써가며 가족들이 선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가족들은 더 주저했다.

나는 낙담하여 교회에 더는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마저 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도했을 때 이런 구절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리고 난 연후에 [네가] 나를 부인할진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했던 것이 너희에게 더 나았으리라”(니파이후서 31:14). 나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경전을 읽었으며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내 삶에 받은 축복에 집중했다. 그러자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생일이 다가오자 나는 우리 집에서 파티를 열고 전임 선교사들을 비롯해 교회 친구 모두를 초대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다. 나는 가족들이 내가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교회 회원들과 더 친해졌으면 했다. 그 파티는 마치 가정의 밤 같았다.

생일 이후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 집에서 선교사들은 환대받았으며 우리 가족과 좋은 친구가 되었다. 하루는 아버지가 가족 모두가 선교사



생일이 다가오자 나는 우리 집에서 파티를 열고 전임 선교사들을 비롯해 교회 친구 모두를 초대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다.

토론을 하고 교회에 가기를 바란다고 선언하셨다. 정말이지 깜짝 놀랄 일이었다.

내가 침례 받은 지 3년이 지난 후, 우리 가족은 모두 침례를 받았다. 침례식에서 어머니가 간증을 나누셨고 아버지는 선교사들에게 감사를 표하셨다. 와드 회원들은 부모님의 개종을 놀라워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 내가 흘린 눈물과 내가 세운 목표들이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 것은 선교사들과 와드 회원들의 사랑과 우정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면서 모범을 보여 주는 회원들은 모두가 선교사였다. 나는 우리 회원들에 대해, 그리고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해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감사드린다. ■

앤젤리카 카보넬 디갈, 필리핀



마이클 티 링우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신앙 소망, 그리고 관계

바람과 믿음,
소망은 결혼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발전시키게
하는 행동으로
발현되어야 합니다.

“아빠, 정말로 득과 실이라는
목록을 만드신 거예요?”
십 대인 아들이 놀랍다는

듯이 물은 이 질문은 제 일지에서
찾아낸 목록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평범한 득과 실 목록이
아니라 30년 전에 아내에게 청혼하기
전에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남성이 저처럼 이런 목록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스물네 살
대학생이었던 당시에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그 목록을 작성하는 게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아들은 그 목록에만 정신이 팔린
나머지 우리의 구애에 관해서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들이 “아빠가
엄마에 관한 목록을 만들었어! 와서
봐!” 하면서 형제자매들에게 소리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돌이켜보면, 아들은
다음과 같이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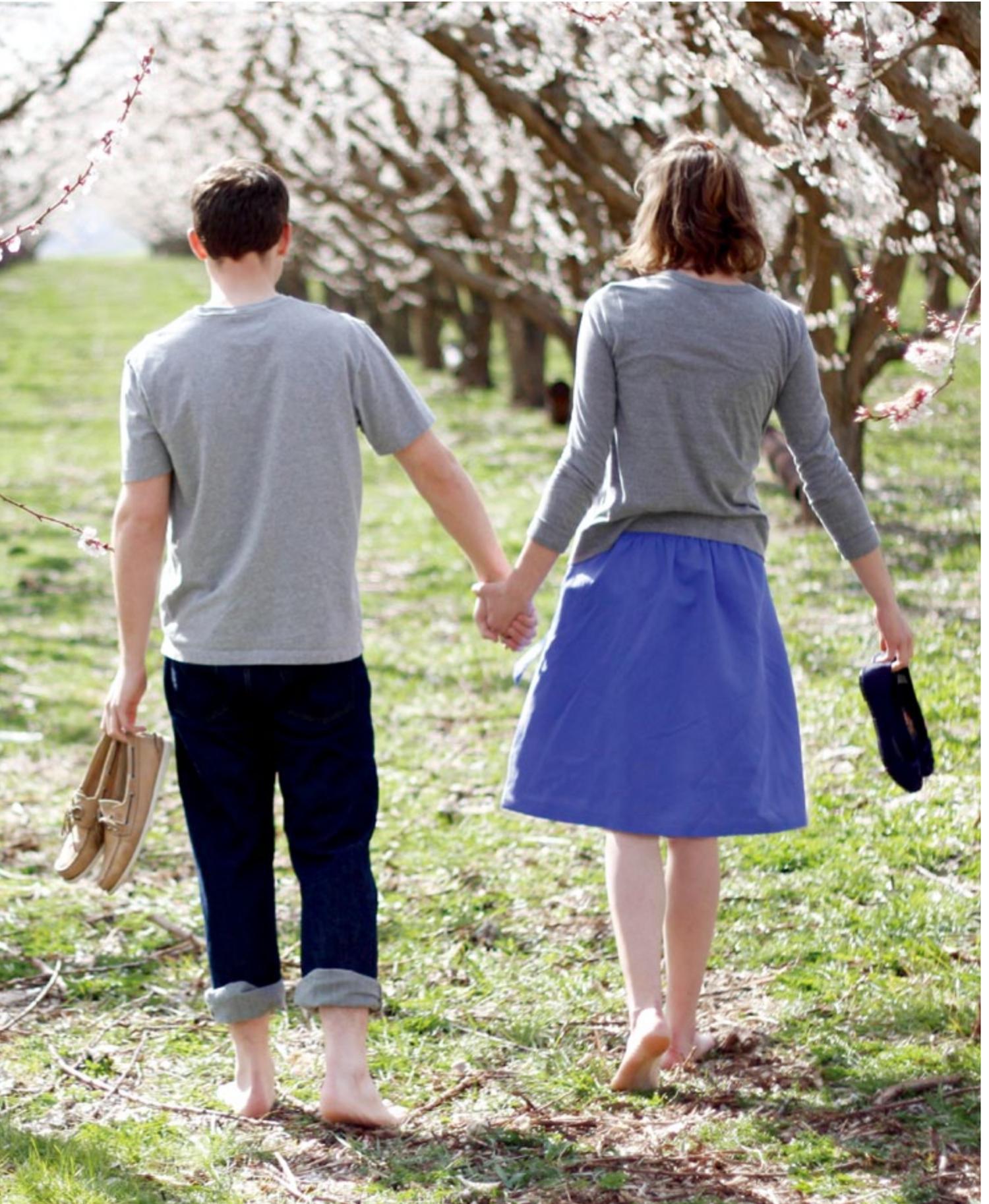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나요?
이 질문이야말로 아들이 맨 처음에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제 대답은 ‘물론
했지’입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아내를 행복하게 해 주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목록은 단지 아내를

사랑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내가 아내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가를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지내는 게 좋지
않았나요? 다시금, 제 대답은 ‘물론
좋았지’입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목록은
아내가 언제나 저와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게 하겠다는 제 소망이
실현 가능한지를 가늠해 보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아빠의 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아마 이 질문이
가장 호기심을 자극할 것입니다. 저는
‘물론 했지’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저는
아내가 “제 인연”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제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선교부 회장님께서 신앙에
관하여, 그리고 신앙의 요소인 바람과
믿음, 소망에 관해 가르쳐 주신 것이
당시 저의 구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완전하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더 분명한 관점으로 보게
된 저는 에프 레이 호킨스 회장님이 제게
미치신 영향력에 무척 감사드립니다.
저는 스무 살 난 선교사였을 때 써 둔
기록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선교부 회장님이 경전을 펴시고서 나중에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영향을 준 그 신앙의 요소를 설명하셨던 것이 적혀 있습니다.

신앙에 관한 엘마의 가르침

신앙에 관해 호킨스 회장님이 나눠 주신 말씀 중에는 엘마가 가난한 조램인들에게 준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마는 아주 작은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것을 *바람*(엘마서 32:27 참조)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신앙을 키우는 단계를 밟아 나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엘마의 가르침에서 신앙의 두 번째 요소는 바람에서 비롯되는 믿음입니다. 엘마는 조램인들에게 자신의 말을 믿어 마음속에 자리를 내 줄 수 있기까지 그들의 바람이 내면에서 역사하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27절 참조) 바람과 믿음이 합쳐지면 그것은 마음속에서 부풀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는 이것이 선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이해력을 넓히고 기쁨을 주기 시작합니다.(28절 참조)

신앙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소망입니다. 엘마는 겸손한 조램인들에게 신앙이란 사물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참된 것을 “바라[는 것]”(엘마서 32:21; 강조체 추가)입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소망은 신앙의 필수 요소라고 모로나이에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어찌 신앙에 이를 수 있느냐?”(모로나이서

7:40) 소망은 미래에 더 나은 무언가를 볼 수 있는 능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¹ 제 목록은 아내와 결혼할 때 “더 큰 행복과 평화”(아브라함서 1:2)를 누리겠다고 다짐하며,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눈으로 제 나름대로 미래를 바라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신앙의 요소인 *바람*이 생긴 저는 제 신앙을 온전히 하기 위해 믿음과 소망이 필요했으며 지금의 아내인 로잘리에게 청혼함으로써 행동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바람, 믿음, 소망을 나타내는 그 목록이 중요했던 까닭은 바로 제 신앙을 온전히 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취할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야고보서 2:17 참조) 신앙의 요소가 것처럼 중요한 질문을 하도록 저를 이끌지 않았더라면, 그 어떤 바람과 믿음, 소망도 제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느낀 더 큰 행복과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애석하게도 제가 처음 청혼했을 때 로잘리는 거절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우리의 계획 혹은 시기에 맞지 않게 전개될지라도 신앙은 여전히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둘 다 끈기와 인내가 필요했으며 1982년 12월, 눈이 내리던 어느 날에 우리는 마침내 결혼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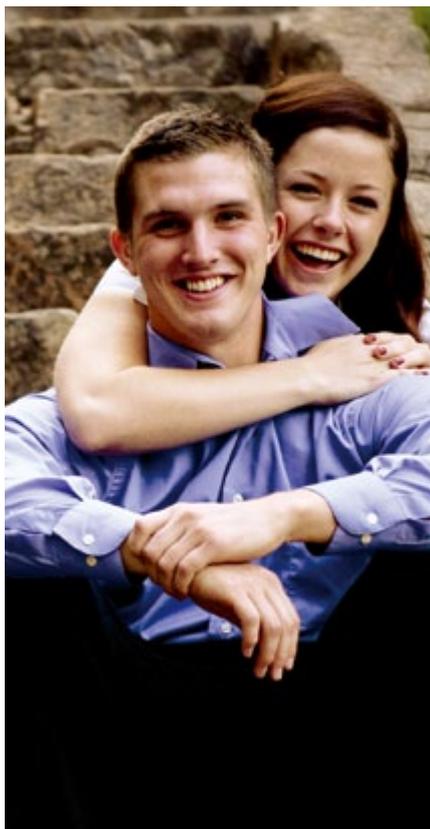
신앙은 데이트와 구애를 비롯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중요합니다. 더 큰 행복과 평화가 우리를 기다린다는 바람과 믿음, 소망은 결혼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발전시키게 하는 행동으로 발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의



계획을 따르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까? 그 계획을 따를 때 더 큰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그 계획을 따르고 성전에서 결혼하는 것이 더 큰 행복과 평화를 준다는 제 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행복한 결혼을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미래에 여러분이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것을 보도록 해 줍니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물론이죠’라면,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십시오. 데이트 신청을 하십시오!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청년 성인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에 가십시오. 간단히 말해, 더 큰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는 길을 추구하십시오.

조셉 스미스가 보여 준 신앙에 관한 모범

신앙과 그 요소인 바람, 믿음, 소망을 모범으로 보여준 조셉 스미스의 예를 한



번 살펴봅시다.

조셉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찾았자 했습니다. 그의 바람이 무척 강렬해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 하나님께 구하라”(야고보서 1:5)라는 경전 구절을 읽기에 이르렀습니다. 조셉은 이 구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면 받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치에 맞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조셉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야고보의 말씀을 믿었고 응답을 받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냥 멈추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을 행한다는 것은 그가 숲으로 들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저는 조셉이 숲으로 들어가 기도했을

때에는 분명 응답을 받고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셉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분명 응답은 기대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모범입니까! 조셉은 바라고, 믿으며, 소망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열네 살짜리 소년의 신앙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성스러운 숲에서 한 조셉의 기도 덕분에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분의 자녀에게 다시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보여줄 기회

주님은 오늘날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1년 반 남짓 전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하는 동반자를 찾아볼 시점이 찾아올 것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집에서 결혼하고 싶을 것입니다. 신권을 받은 여러분은 선택할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연애 기간 동안 선을 넘지 않고도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²

여러분은 바람과 믿음, 소망을 저처럼 목록화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이런 요소를 실천에 옮긴다면, 함께 더 큰 행복을 찾을 동반자를 찾음으로써 주님의 선지자에게 순종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람, 믿음, 소망 역시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영원한 결혼을 추구하고 가꾸어 나갈 때 오는 축복은 엘마가 “지극히 귀하고, 감미로운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감미로우며 …… 순결한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순결”하다고 표현한 복음의 열매로 이어질 것입니다. 엘마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열매를 배부르도록 흡족히 먹게 되리니, 너희가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앨마서 32:42)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신앙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주

1. Dennis F. Rasmussen, “What Faith Is,” in Larry E. Dahl and Charles D. Tate Jr., eds., *The Lectures on Faith in Historical Perspective*(1990), 164 참조.
2. 토마스 에스 몬슨, “신권 권능”,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67~68쪽.



후안 에이 우세다
장로
칠십인

몰몬경을 나누십시오

저는 몰몬경을 읽으면서 느낀 세
가지 때문에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열 여덟 살 때, 저는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인 페루 리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옛 친구를 우연히
만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친구분이 더 젊어 보이고
잘 차려입은 것에 관심이 끌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친구분에게 무슨 일로 이렇게
변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복권이라도
당첨된 건가?”라고 아버지가 묻자
친구분은 “그보다 훨씬 좋은 것이지.
이제 몰몬이 되었다네. 자네와 자네
가족에게도 복음을 나누고 싶군.”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친구분이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시고는 “좋네, 선교사들을



교회에 들어온 직후 페루
리마에서 가족과 함께한
우세다 장로(오른쪽에서 두
번째).

가족 사진 제공: 우세다 장로, 삽화: 브라이언 톨

보내고 싶다면 그렇게 하게.”라고 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말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셨고, 며칠 뒤에 선교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멋진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물몬경에 관해 가르쳤고 우리가 읽어 보도록 한 권을 두고 갔습니다. 때는 여름이었고, 저는 대학 일 학년 과정을 마치고 몇 달간 방학을 맞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을 마치고서 그날 오후에 물몬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씩 넘기며 읽고 또 읽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책의 마법과도 같은 힘입니다. 독서를 좋아해서 많은 책을 읽어 봤지만 물몬경은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물몬경에 매료되었고 몇 시간 동안 정신없이 읽다 보니 어머니께서 “후안, 불 끄렴! 동생들이 자고 싶어 하잖니.” 하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저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라고 하면서도 계속 읽었습니다. 오랜 시간 읽었지만 배가 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졸리지도 않았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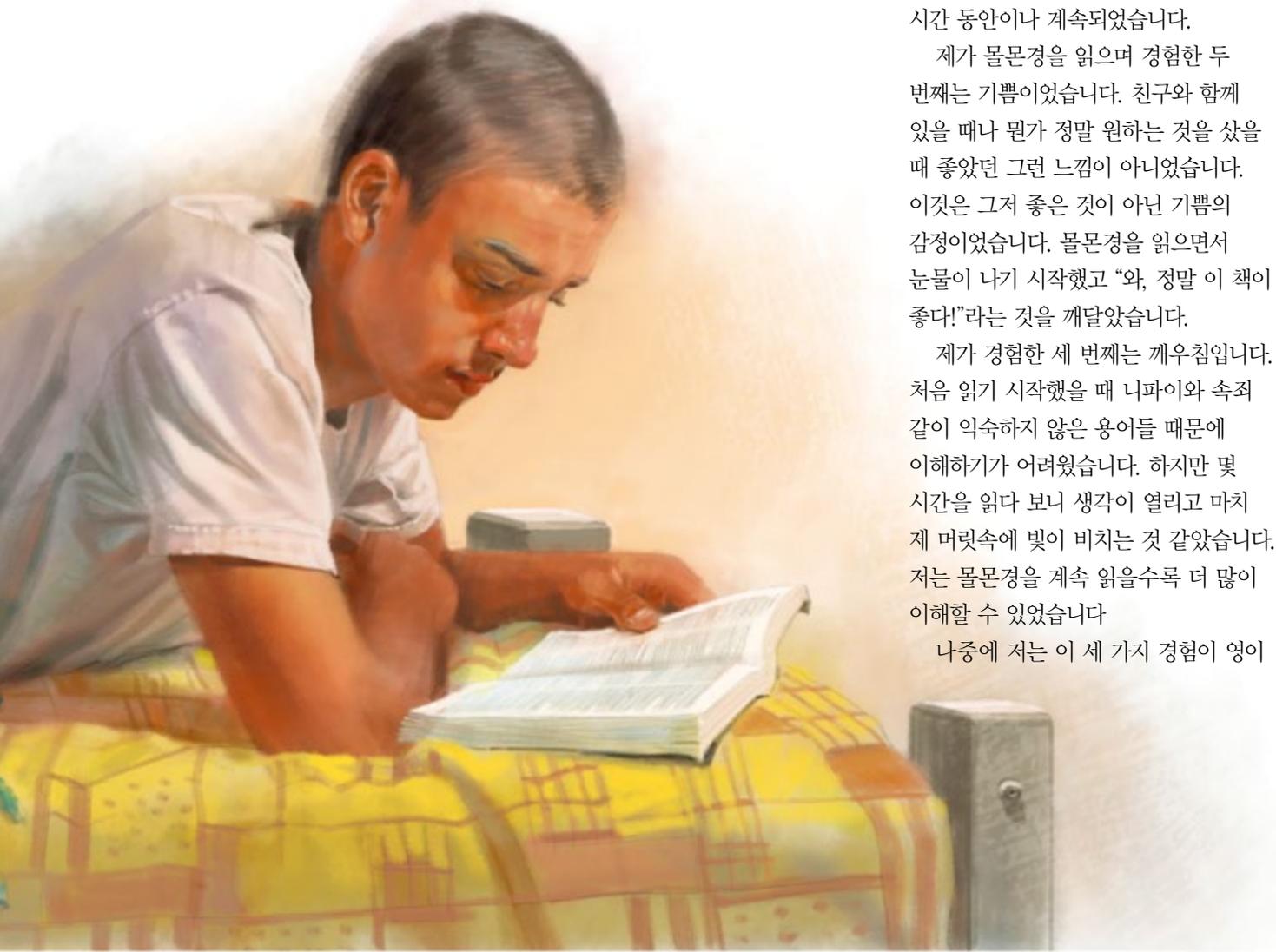
물몬경 전체를 다 읽기도 전에 저는 물몬경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몬경을 처음 읽었을 때 경험한 세 가지 때문에 간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느낀 첫 번째는 예전에 경험해 본 것과는 다른 놀라운 평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물몬경을 읽으며 경험한 두 번째는 기쁨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있을 때나 뭔가 정말 원하는 것을 샀을 때 좋았던 그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좋은 것이 아닌 기쁨의 감정이었습니다. 물몬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와, 정말 이 책이 좋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세 번째는 깨우침입니다.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니파이와 속죄 같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을 읽다 보니 생각이 열리고 마치 제 머릿속에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물몬경을 계속 읽을수록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이 세 가지 경험이 영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을 느꼈으며 침례 받을 준비가 되었으나 가족들이 자신만의 간증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1972년 4월 6일, 저는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제 형제 자매가 침례식에 참석해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받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았으며, 몇 달 뒤 그들 역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와 복음은 적절한 때에 제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었을 때 저는 인간이 만든 많은 철학과 새로운 생각,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살던 방식과는 첨예하게 다른 삶의 방식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새로운 생각들 때문에 어릴 때 다른 교회를 다니며 배웠던 많은 가치관이 흔들렸습니다.

혼란을 느꼈기에 그때 저는 힘들었습니다. 제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 많은 새로운 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식은 가치관을 지킬 만큼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침례를 받은 후, 대학에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제게 전혀 다른 일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말해 줄 뭔가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마음으로 “고맙지만 사양할게. 날 위한 일은 아닌 것 같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와 몰몬경은 제게 적절한 시기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어 주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에 들어오겠다는 결심으로 축복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저는 절친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원래 수줍음이 많던 성격이어서 혼자 지내며 공부하거나 책을 읽고 홀로 있는 시간을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제 삶에 들어오면서 저는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된 훌륭한 여성을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저를 염려하는 신권 지도자들과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저는 제게 필요한 것들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교회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입을 열어 친구들에게 “나는 이것을 믿어. 너와 이것을 나누고 싶어.”라고 말하십시오. 종종 여러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하는 어른들의 말을 듣긴 하지만,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또래 친구가 하면 여러분은 그 친구를 따릅니다. 웬지 모르지만, 친구의 목소리는 어른의 목소리보다 더 강합니다. 따라서 훌륭한 모범이 되십시오. 저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기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 “우리 교회에 널 초대하고 싶어. 이 책을 읽으면 좋겠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일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



교회에 들어온 후 우세다 장로는 페루에서 전임 선교사로서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전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 왼쪽 위: 자신이 가르쳤던 개종자 가족들과 함께 서 있는 우세다 장로(오른쪽). 왼쪽 아래: 교회 건물 밖에서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모여 있는 우세다 장로(오른쪽 뒷줄)

교리와 성약 87편 8절

올해 상호 향상 모임의 주제는 우리가 서야 할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 줍니다.



서서

“주님은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분의 영을 느끼며, 소망과 용기로 의롭게, 강하고 굳건하게 서며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거룩한 곳에 서십시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86쪽.

그 날이 속히 임함이니라

“우리는 [재림]의 표적을 지켜보아야 하며, 할 수 있는 한,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 그러나 재림과 그에 관련된 일들이 미래에, 어디에선가 일어난다고 하여 우리의 삶이 마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충만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지금은 가장 위대한 경륜의 시대입니다”, *리아호나*, 2007년 7월호, 19~20쪽.

주의 날

주의 날—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8 그런즉 너희는 주의 날이 이르기까지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 이는 보라, 그 날이 속히 임함이니라. 주가 이르노라. 아멘.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에는 성전과, 충실하게 지켜지는 성약이 포함됩니다. 자녀들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부모가 존경받는 가정이 포함됩니다. 분명 거룩한 곳에는 선교 사업과, 지부, 와드 및 스테이크에서 충실하게 수행하는 부름을 위시하여 신권의 권능에 의해 지명된 의무가 포함됩니다.”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재림을 위한 준비”,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0쪽, 강조체 추가.

움직이지 말라

어떤 것을 움직이지 않게 하게 하는 방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맞-**“소망은 …… 사람의 영혼에 맞이 되어”(이더서 12:4)
- **확실한 기초-**“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하느니라] ……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힐라맨서 5:12)
- **단단한 기반-**한 발은 시온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야고보서 1:8)이기 때문입니다.
- **장막의 말뚝-**시온이라는 장막을 고정하는 말뚝은 우리에게 피난처를 만들어 주는 동시에 교회를 강하고 흔들림없이 설 수 있게 합니다. “시온의 땅에 그리고 그 스테이크들에 집합하는 것이 …… 폭풍우를 피하고 …… 피난처가 되게 하라”(교리와 성약 115:6)

편집자 주: 이 기사는 선정된 성구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 학습을 시작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2013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더 높은 곳에 서서

데이비드 엘 벡
본부 청남 회장

20 13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는 교리와 성약 87편 8절에 있는 “그런즉 너희는 주의 날이 이르기까지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에서 인용했습니다. 저는 모든 청남이 **나는 거룩한 곳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내년에 깊이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용감한 청남들을 만나면서 저는 수많은 청남들이 이 일을 이미 여러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를 하기 위해 성전에 갈 때, 가장 거룩한 곳에 서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고 또 성전에 들어가기에 항상 합당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완수할 때, 여러분은 거룩한 곳에 서고, 다른 사람을 고양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매주 일요일에 성찬을 준비하고 축복하며 전달할 때, 여러분은 거룩한 곳에 서게 됩니다. 복음을 나눌 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당하며 언제나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주 성역자로서 행동할 때, 여러분은 거룩한 곳에 서게 됩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여러분은 경고하고, 해설하며, 권면하며, 가르치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교리와 성약 20:59 참조) 해롤드 비리(1899~1973)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서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영혼을 고양시킬 수 없습니다. ……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불타오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불을 지필 수 없습니다.”¹ 청남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간증을 강화하고 언제나 기꺼이 간증을 나누려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야 할 성스러운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열심히 계명을 지키려 하고 영의 속삭임을 듣는다면, 더 높은 곳에 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도와 일으켜 줄 힘과 용기, 능력을 얻고, 주님이 거룩한 곳에 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힘과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얻게 되는 약속에 대해 확신을 주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다음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분의 영을 느끼며, 소망과 용기로 의롭게, 강하고 굳건하게 서며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않게]”(교리와 성약 87:8) 될 것입니다.

변화의 바람이 주위에서 소용돌이치고 사회의 도덕성이 눈 앞에서 와해되어 가는 이 시기에 주님이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주신 소중한 약속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²(이사야 41:10) ■

주

1. Harold B. Lee, “Stand Ye in Holy Places,” *Ensign*, July 1973, 123.

2.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거룩한 곳에 서십시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86쪽.



“너희는 ……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

(교리와 성약 87:8)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한 곳이란

일레인 에스 돌튼
본부 청년 회장

올 해 상호 향상 모임의 주제는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라고 권유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우리가 적진에
살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¹ “너희는 …… 거룩한 곳에 서서”
이것은 생존을 위한 열쇠입니다.

이 주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거룩한 곳이란 무엇이며 어디가 거룩한 곳인가?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평소에 거하는 곳을 어떻게
더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노력한다면, 여러분이 찾은 답은 여러분이 만날 사람과 참여할
활동, 합당한 복장과 언어와 행동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하며 주님의 영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힘쓰십시오. 여러분은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은 영을 초대하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지자가 여러분의 방을 보게 된다면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여기실까요? 여러분은 그곳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회에 가면,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시온의 와드와 스테이크가 거룩한 곳이며
“방어진이 되며 [폭풍우로부터] 피난처”(교리와 성약 115:6)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 대인 젊은 친구 여러분,

늘 성전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성스럽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데 방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는 청소년, 즉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 등교하기
전에 침례 의식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²
성전이 멀리 있더라도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항상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영이 임재한 곳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해롤드 비 리(1899~1973) 회장은 거룩한
곳은 어디에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정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³ 성신이 항상 함께할 수 있을 만큼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전의 벽면에는 “주님께 거룩함”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언제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게 힘쓰십시오.
표준대로 살고 매일 기도하고 경전, 특히 몰몬경을 읽을 때
성신이 함께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큰일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45:62)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으며, 이 약속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

주

1. 보이드 케이 패커, “적진에서 생존하는 법”, *리아호나*, 2012년 10월호, 34~37쪽 참조.
2. 토마스 에스 몬슨, “거룩한 성전은 세상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93쪽.
3. *교리와 성약 학생 교재*: 종교 324와 325, 2판(교회 교육 기구 교재, 2001), 196쪽 참조.



애덤 시 올슨
교회 잡지

아궁이 배드민턴에서 배운 것

희망이 포기하려는 마음을 물러가게 한다는 것을 배운 한 인도네시아 청소년이 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인도네시아 조크자카르타의 습한 날씨 속에 상대방의 서브를 기다리는 아궁이의 얼굴에는 구슬땀이 흘러내렸다. 배드민턴 경기는 접전이었고, 열다섯 살 소년 아궁이는 반드시 이기고 싶었다.

맹렬한 공격을 주고받은 후, 상대방 선수는 셔틀콕을 아궁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내리꽂았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막상막하의 경기에서 점수를 잃고 싶지 않았던 아궁이는 셔틀콕을 향해 몸을 날렸으나 받아치지 못하고 시멘트 코트에 미끄러져 피를 흘렸다.

배드민턴 경기에 대한 아궁이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아궁이는 프로 배드민턴 선수를 꿈꾸지는 않는다. 배드민턴 올림픽에 나가느냐 혹은 선교 사업을 하느냐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 자신이 운동에 그다지 뛰어난 소질은 없다는 것도 시인했다.

그렇다면 함박 웃음을 짓는 이 작은 소년은 왜 그토록 열심히 할까? 바로 희망 때문이다.

아궁이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어요.”



희망하는 이유

우리는 희망 때문에 많은 것을 한다. 더 튼튼하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며 운동을 하고, 악기를 더 잘 연주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악기를 연습한다. 아궁은 자신이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라기에 배드민턴을 연습한다.

아궁은 “더 나아지겠다거나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없으면 정말 쉽게 포기하게 되죠.”라고 말한다.

희망은 구원의 계획에서 필수 요소이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다시 노력하게 해 준다.

희망을 공격하는 사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주요 무기 두 가지는 바로 의심과 낙담이다. 사탄은 속죄를 방해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망칠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저버리게 하는 방법을 써서 우리 삶에서 속죄가 발휘하는 정화의 효력을 없애려고 계속 시도한다.

아궁은 이렇게 말한다. “사탄은 우리가 희망을 버리기 바라죠.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니까요.”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낙담시킬지라도

희망을 되찾을 방법은 있다.

희망 찾기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필요할 때,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수 있다. 아궁은 학교에서 한 경험 덕분에 이 교훈을 배웠다고 한다.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 성적이 잘 나오죠. 그런 경험 때문에 열심히 연습하면 배드민턴 실력이 더 좋아지리라는 희망을 느끼는 거죠. 저의 그런 경험에서 희망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희망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것을 속죄의 권능(로마서 5:4 참조)과 관련한 우리의 과거 경험과 성찬식, 주일학교 공과, 리아호나, 혹은 경전(야곱서 4:4~6 참조)에서 보고 들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선지자들의 희망에 찬 말씀을 공부하면서 희망이라는 영적인 은사에 대해 기도하고 우리 삶에서의 구주의 힘을 깨닫는 법을 배울 때, 그분이 미래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희망이 커져 가듯 그분을 믿는 우리의 신앙도 커질 것이다.¹

절대 포기하지 않기

아궁은 자신이 절대 프로 선수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계속 노력하면 발전하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아궁이 배운 희망의 위대한 힘은 이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희망의 궁극적인 원천이다. 속죄가 있기에 우리는 실수를 하더라도 회개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속죄가 있기에 우리가 계속 회개하고 순종한다면 실수를 하더라도 삶의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궁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매주 일요일에 교회로 초대한다. 그래서 아궁은 친구들이 옳지 않게 행동하더라도 자신은 옳은 것을 수호하려 한다. 그래서 아궁은 세미나리, 상호 향상 모임, 일요일 모임, 선교사 준비 반에 그토록 자주 참석하고 건물 청소를 돕기 위해 집회소로 왕복 1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간다.

아궁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때때로 낙담하기도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아요. 저를 위해 치르신 그분의 희생 때문에 저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요.”

속죄가 있기에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면, 속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

주

1.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무한한 소망의 힘,”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21~24쪽 참조.



희망이라는 약속

“하나님께서서는 과거에 그분이 하신 약속을 충실히 지키셨으므로, 현재와 미래에도 그분께서 하시는 약속을 지킬 것임을 우리는 확실히 바라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무한한 소망의 힘,”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23쪽.

교육

지식을 쌓을 때,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가 생깁니다.

니 파이 백성의 영혼의 복지에 큰 관심과 염려를 보인 야곱은 백성들에게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임할 일”(니파이후서 6:4)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백성이었으며, 그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그들이 진정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주님의 약속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야곱은 백성들에게 구주에 대해 가르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크냐! 이는 그가 모든 것을 아시며,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이라”(니파이후서 9:20, 강조체 추가)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수세기 전, 이 지상 저편에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조상의 축복을 구[했으며]” “또한 큰 지식을 지니는 자가 되며, 의의 더 큰 추종자가 되고, 더 큰 지식을 지니려 했습니다.”(아브라함서 1:2)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딸이며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세우신 성약에 속[하는] 자”(제3니파이 20:25)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배울 때 “더욱 온전히 가르침을 받[을]”(교리와 성약 88:78)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바람직한 지식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 전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 있는 일이나 머지않아 반드시 있게 될 일, 국내에 있는 일이나 외국에 있는 일, 열국의 전쟁과



크레이그 에이 카든 장로
철십인



혼란,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심판과 또한 나라들과 왕국들에 관한 지식”(교리와 성약 88:79)이 있다고 명시하셨습니다.

교육을 받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주님께서는 직접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그 부름과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사명을 영화롭게 하도록 내가 또다시 너희를 보낼 때에 너희가 모든 일에 준비가 되어 있게 하려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88:80)

점차 복잡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교육은 삶에서 추구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대개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현세적인 보상을 받을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식을 쌓는 것에 있는 더 큰 가치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은 여러분이 좀 더 그분과 같이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성을 함양하고 기량과 재능을 발전시키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힘을 기르고 삶에 대한 이해력을 키우기를 바라십니다.”²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식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존재들을 굴복시키는 방법을 아십니다.”³

여러 유익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정규 교육을 통해 수년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주제를 공부합니다. 어떤 것은 생소하거나 특히 그다지 흥미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야가 커지고 지성의 범위가 넓어져 다른 분야 역시 배울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기초 기술과 주제를 접할 때, 진정으로 관심 있는 기술과 주제를 발견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을 기울여 계속 교육을 받으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더 심도 있게 추구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교육에 정진할 수 있도록 부친께서 해 주신 귀중한 충고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네가 어떤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을 때, 네가 자연스럽게 될 정도로 네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⁴고 권고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자녀들에게 교육을 받고 진정 관심 있는 분야에서 “즐겁게 일하러 갈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찾도록 권고해 왔습니다.

야곱은 백성들에게 “사람들의 …… 나약함과 어리석음”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학식을 얻으며 자신이 현명하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우리를 고결하게 해 주는 이 진리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권고에 귀 기울일진대, 학식을 얻음은 좋으니라”(니파이후서 9:28~29) 학식을 얻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변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참조.
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9쪽.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65쪽.
4. 제럴드 앤 렌드, “헨리 비 아이어링: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 인격이 형성됨”, *리야호나*, 1996년 4월호, 28쪽.



계속 연습하면

나는 그만두고 싶었다. 이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기는 할까?

윌리스 젠슨

“**더**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지 않아요.” 나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다. 몇

년간 피아노를 배워 왔지만, 연습에 싫증이 난 것이다. 나는 당장이라도 그만둘 참이었다. 게다가 나는 실력도 형편없었으니까. 가벼운 청각 장애로 보청기에 의존하는 신세였기에 나는 한번도 내가 음악적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노래 계명을 익히려면 늘 엄청나게 연습을 해야 했다.

어머니는 별 말씀 없이 그저 찬송가를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배워야 한다고만 하셨다. 나는 불평을 잔뜩 늘어놓았지만, 부모님의 격려 때문에 그만두지 않기로 했다.

몇 년이 흐른 후, 나는 수천 마일이 떨어진 중앙 과테말라 산맥의 한 예배당에 있었다. 선교사인 나는 구역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그곳에 일찍 도착했고, 피아노가 있는 것을 보고는 앉아서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와드와 지부에는 작은 전자 키보드뿐이라 연주가 어려웠는데, 진짜

피아노를 치게 되어 무척 신이 났다. 그러다 결국 나는 대회에서 회중을 위해 반주를 해 달라는 요청까지 받게 되었다.

무엇이 내 어린 시절의 태도를 선교사로서의 지금의 나의 태도로 이토록 변화시켰을까? 그것은 내가 음악을 통해 영의 힘을 느꼈기 때문이다.

선교 사업을 하면서 내가 배워 둔 음악적 기술을 사용할 기회가 많았다.

나는 노래하고 피아노를 연주할 많은 기회를 대단히 좋아했고, 거의 매주 성찬식 모임에서 반주를 했다. 찬송가를 부르는 충실한 과테말라 성도들의 노랫소리에 귀 기울이던 시간을 언제까지나 기억할 것이다. 나는 회원들이 생소해하는 새로운 찬송가도 가르쳐 드렸다. 또 기본적인 피아노 연주법도 가르쳤다. 동반자들과 함께 구도자들에게 노래도 불러 주었다. 비록 음정이 이상하더라도 영이 언제나 함께했기에 사람들은 감동했다.

나는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며, 여전히 배움을 통해서 음악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절대 세계 일류 피아니스트가 될 수는 없을 테고 과테말라의 많은 회원들 역시 태버나클 합창단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설사 그렇더라도 우리는 음악을 통해 영을 느끼며 즐길 수 있다. 부모님이 피아노를 배우도록 격려해 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리고, 내가 계속 연습했다는 것에 감사하다. ■

여러분의 기술과 재능을 발전시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은 여러분이 좀 더 그분과 같이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성을 함양하고 기량과 재능을 발전시키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힘을 기르고 삶에 대한 이해력을 키우기를 바라십니다. 현재와 내세로 이어지는 삶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받은 교육은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9쪽.



거룩한 곳에 서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영이 임재한 곳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일레인 에스 돌튼, “여러분 삶에서 거룩한 곳”,
리아호나, 2013년 1월호, 51쪽, 또한 교리와 성약 87편 8절 참조)

카일리에게서 좋은 면을 찾아라

카린 스테이시

우리는 서로를 참을 수 없었다.
친구가 될 수는 있는 걸까?

4학년 때 우리 반은 정말이지 최고였다. 카일리(가명)만 빼면 모든 것이 완벽했다. 카일리는 나를 비롯해 모든 애들을 못살게 굴었다. 나는 카일리가 복도에서 다른 애들을 밀치는 것을 봤고 나도 몇 번 당했다. 왜 나를 못살게 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울면서 집에 돌아오기도 했다.

카일리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다. 같이 앉으려는 애들이 없어서 카일리는 점심시간에 식탁을 몽땅 차지하고 앉았다. 엄마께 카일리 이야기를 했더니 내 인생을 바꾸는 지혜를 말씀해 주셨다. “아마 카일리는 그냥 친구가 필요한가 보구나.”

이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거리낌 없이 나한테 욕하는 애한테 어떻게 친절히 대할 수 있단 말이지?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카일리에게 더 잘해 주고 그 아이를 이해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카일리를 더 잘 알게 될수록 사실 그 애가 괜찮은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곧 나는 카일리의 삶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끔찍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카일리의 가정은 엉망이었고 카일리는 대화 중에 “가족”이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았다.

하루는 점심시간에 나는 친구들과 같이 앉아 있었다. 카일리가 다른 애들을 못살게 굴었기에 카일리한테 똑같이 대하려는 여자애들이 몇 명 있었다. 그 애들은 카일리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카일리를 놀리기 시작했다. 그 아이들은 “우리랑 같이 앉을래? 싫거든!”, “이게 무슨 냄새니? 카일리한테서 나는 거구나!”, “우리한테서 떨어져!”라는 식의 말을 하며 놀려댔다. 나는 거기서 그 말들을 듣고 있었다.

그때 머릿속에 작은 음성이 들렸다. “뭔가 해야지.” 내가 일어나자 여러 명의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그만해! 왜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니? 좀 친절히 대해 주란 말이야!” 하고 말했다. 모두가 조용해졌다. 자리에 앉으면서 카일리를 쳐다봤다. 카일리는 고개를 돌려 정말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다.

6학년이 되어 열두 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나는 친구들 몇몇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고 싶었다. 엄마가

누구를 초대하고 싶은지 물어보셨을 때, 머릿속에서 그 작은 음성이 “카일리를 초대해.”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다.

나는 엄마에게 “카일리를 초대하고 싶어요.”라고 말씀드렸다.

“정말이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일 파티 후 카일리를 비롯한 친구들과 나는 더 친해져서 그 학기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 석 달 동안은 금요일마다 만났다. 카일리는 매번 왔으며 우리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나는 이제 8학년이 되었고 다른 주로 이사 갔지만, 내 절친한 친구가 된 카일리와 자주 연락한다. 때때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가까워졌는지 물어본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4학년 때 카일리는 나를 못살게 구는 아이였고 우린 서로 정말 미워했었지.”

“그럼 어떻게 그런 친한 친구가 된 거야?”

“카일리의 좋은 면을 찾으려고 했거든. 누구나 그런 점이 있기 마련이잖아. 나는 카일리에게서 그런 면을 찾은 것뿐이야.” ■



특별한 증인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어떻게 간증을 얻을 수 있나요?



간증을 얻는 것은 학습과



기도,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복음대로 살며



영을 불러오고 기다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조셉 스미스의 삶은
이러한 과정을
아주 잘 보여 줍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계획

“가족은 영원해”(어린이 노래책, 98쪽)

머리사 위드슨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



엄마 아빠를 몹시 그리워하며 두 분의 침대에 걸터앉아 있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빠였습니다. “잘 있었니, 레비. 오늘 오후에 네 여동생 노라가 태어났단다!”

아빠는 행복하신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걱정하시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몸집이 얼마나 돼요?” 저는 정말 그제 궁금했습니다.

아빠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다가 “0.9킬로그램이 조금 넘는단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노라는 성탄절 즈음에 태어나야 하는데, 이제 겨우 9월이었습니다. “굉장히 작지만, 건강해.” 그리고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비, 동생과 우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렴. 우리 가족에게 제일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말아야.”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부엌으로 가서 엄마가 수프 만드는 데 쓰시는 콩 한 봉지를 집어서 들여보았습니다. 콩 봉지 무게가 지금 노라의 몸무게와 거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봉지를 들고서 그 정도 무게의 아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상상해 보려 했습니다.

전세와 구원의 계획에 관해 배운 것을 떠올리며 ‘노라의 영은 얼마 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었어.’ 하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노라가 죽게 되더라도 우리는 한 가족으로 서로 인봉되었기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라가 이 세상에서 우리랑 함께 살았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다음 몇 달간 엄마와 아빠는 병원에 자주 가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와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집에 와 주셨습니다. 워드 회원들이 우리 가족을 위해 금식 기도를 했고 친절한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이 종종 우리를 위해 저녁거리를 가져오셨습니다. 모두들 노라의 상태를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 아빠는 거실에 우리 모두를 불러모으셨습니다. 아빠가 노라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감독님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양복으로 갈아입고 넥타이를 매신 후 나가셨고, 엄마는 우리 모두를 소파 주위에 불러모아 기도를 하셨습니다.

“남편이 노라에게 신권 축복을 줄 때 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엄마가 기도하셨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나지막해졌습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제발 노라가 집으로 와서 건강해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저는 성신이 평화와 사랑으로 방안을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라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모두가 그분이 마련하신 계획의 일부라고,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늦게 돌아오신 아빠는 병원에서 굉장한 일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통 노라의 병실은 시끄러웠습니다. 많은 기계와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내며 불빛을 깜박였으며 간호사와 의사들은 언제나 그곳에 있는 자그마한 아기들을 돕기 위해 분주히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빠와 감독님이 도착했을 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기계가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아기들 옆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아기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빠와 감독님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서 노라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노라가 이 지상에서 계속 성장할지, 혹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분께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며 평화를 느꼈습니다. ■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곳을 탐방해 보세요!

조셉 스미스가 살았던 두 채의 가옥

젠 핀보로우 교회 잡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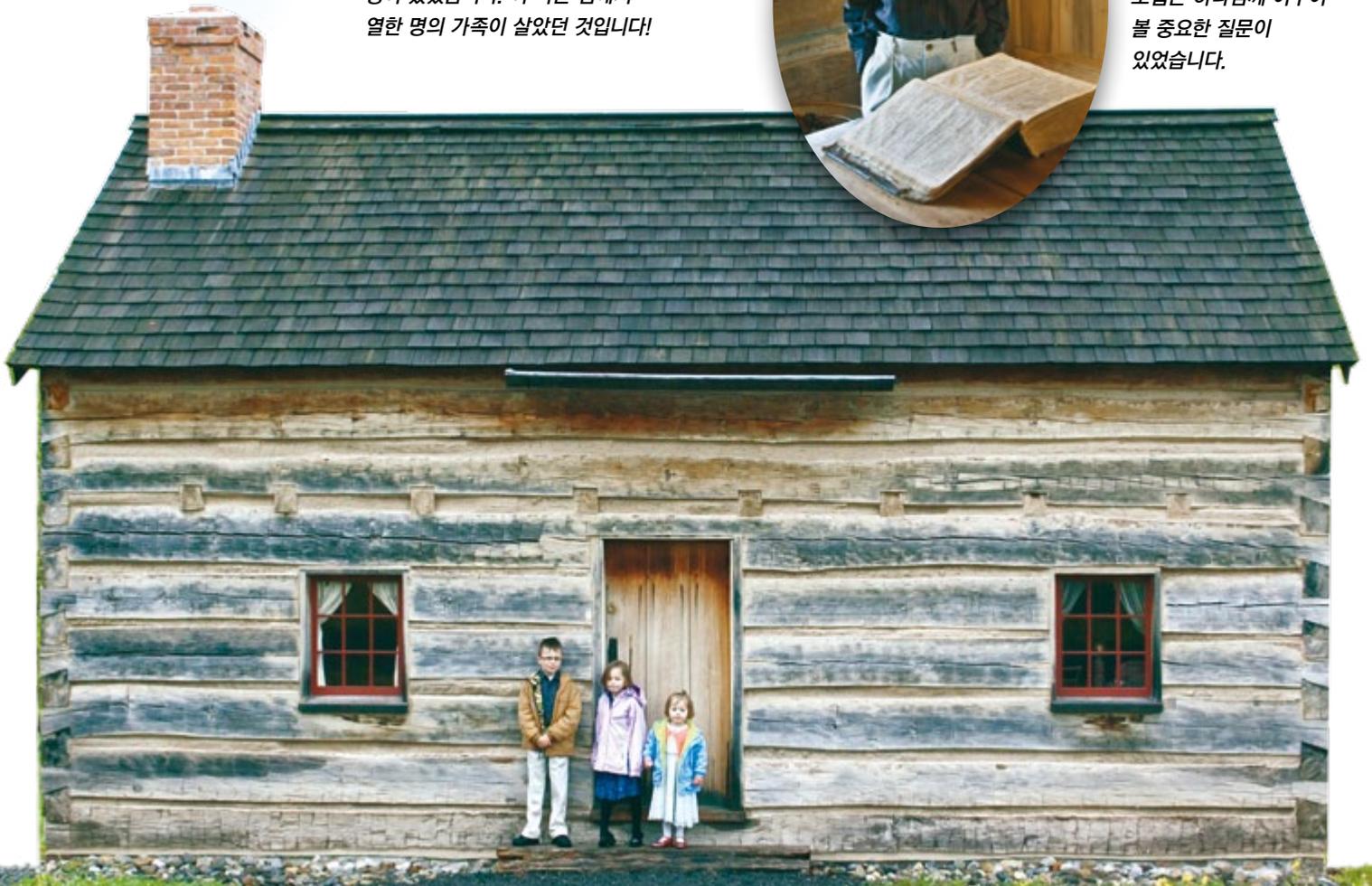
뉴욕 주 팔마이라는 193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복이 시작된 곳입니다. 루크, 레이첼, 줄리아 에스는 이 특별한 곳을 방문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살던 곳과, 그가 지상에 교회를 회복하도록 어떻게 도왔는지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통나무 집

이 통나무 집은 조셉이 열두 살부터 열아홉 살 때까지 살던 집과 비슷하게 지은 것입니다.

1. 조셉에게는 형제 다섯 명과 자매 세 명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집에서 열한 명의 가족이 살았던 것입니다!

2. 조셉의 가족은 부엌 식탁에 모여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열네 살 때 조셉은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조셉은 하나님께 여쭙어 볼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3.

1820년 어느 이른 봄날, 조셉은 통나무 집 근처의 숲으로 가서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할지에 대해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어 어떤 교회에도 가입하지 말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셉이 지상에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을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

2층에서 여섯 형제가 다함께 잠을 잤습니다. 조셉이 열일곱 살 되었을 때의, 어느 밤에 천사 모로나이가 세 번이나 나타나 금판에 관해 이야기하며 조셉이 그 금판을 번역하여

몰몬경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은 4년 뒤에 그 금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 구조

조셉이 19세일 때, 그의 가족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조셉은 쿠모라 산에서 금판을 받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5. 어떤 사람들은 금판을 훔치려고 왔습니다. 조셉은 금판을 이 벽난로 앞에 있는 벽돌 밑에 숨겼습니다.



6.

조셉의 누이인 소프로니아와 캐더린은 이 작은 침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 밤, 조셉은 금판을 옷에다 싸서 침대에서 자는 두 누이 사이에 숨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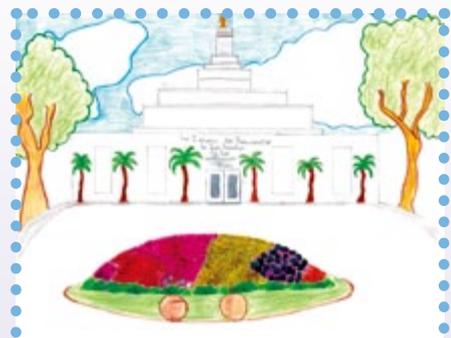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와 첫번째 시현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첫번째 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첫번째 시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일이 세 번 나오는데, 이때가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17 참조) 다른 두 번은 구주께서 니파이 백성을 방문했을 때와 그분이 침례 받으셨을 때입니다.(제3니파이 11:7; 마태복음 3:17 참조)

우리들 이야기



베네수엘라에 사는 열한 살짜리 소녀 캐롤리나 엘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안에서 성장했으며, 언제나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성전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2012년 3월에 캐롤리나는 처음으로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캐롤리나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성전에 갔을 때 엄마가 친구들과 함께 의식을 받는 동안, 저는 아빠와 형 라이언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성전 대기실에 있을 때 아주 경건하게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와서 영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친절을 느낄 수 있어 정말 좋았어요. 저는 주님의 집을 사랑해요.

조지 엠, 6세, 코스타리카



이것은 파라과이 아순시온 성전 그림이에요. 우리 가족은 곧 있으면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무척 기뻐요. 제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요.

안젤로 엔, 5세, 파라과이



우리는 정말 특별한 가족입니다. 우리 집은 교회와 6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건이 될 때마다 교회에 갑니다. 일요일이면,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성찬 축복을 하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에서 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브라질 헤시피 성전에도 갑니다. 저는 나이가 차면 선교 사업을 나갈 것입니다. 저는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합니다. 훌륭한 소년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복음을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케빈 엘, 8세, 브라질



여동생 오메가와 저는 성전 보는 것을 좋아해요. 와드에서 멕시코 몬테레이 성전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한밤중에 출발해서 6시간을 여행한 끝에 그곳에

도착했어요. 저는 성전이 가족을 영원하게 해 주는 곳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곧 특수틀라구트에레스로 이사 갈 거예요. 그곳에도 성전이 있으니 성전에 더 자주 갈 수 있을 거예요. 성전이 있어서 감사해요.

헬렘 엔, 4세, 멕시코



과테말라 케트살테낭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저는 놀라운 평화를 느꼈어요. 헌납식 동안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말씀들이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후안 지, 11세, 과테말라



소렌스 에스, 6세, 브라질



읽을 수

메릴리 부른
실화에 근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이라]”(디모데후서 1:7)

메리는 초등학교 반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차례로 경전을
읽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
자리에서 안절부절못하며 몸을
들썩였습니다. 메리는 자기 차례가 영영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메리는 난독증이라고 하는 학습
장애가 있습니다. 책을 볼 때면
글자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메리는 큰 소리로 읽어
보려 하지만 말이 느려지고 때때로
뒤죽박죽이 되기도 합니다. 종종
메리는 책에 있지도 않은
말들을 읽어 내기도 합니다.

있을 때까지



차례가 다가올수록 메리는 두려워졌습니다. 마침내 자기 차례가 되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갈래요.” 메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바람에 경전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메리는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도 화장실에는 마침 아무도 없었습니다. 메리는 구석에 서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로 들어오셔서 메리의 이름을 부르는 스미스 자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메리, 괜찮니?”

메리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메리는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문제를 겪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메리는 “입을 수가 없어요!” 하고 울부짖으며 포갠 두 팔 사이로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입을 수가 없다니?” 영문을 모르는 스미스 자매님이 물으셨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말씀하는 것을 봤는걸? 글자를 읽을 줄 알잖아.”

메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말씀을 외워서 사람들 앞에서 읽지 않고도 말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했거든요. 저는 크게 소리 내어 읽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 실수를 많이 해요. 다른 아이들이 저를 놀리는 게 싫어요.”

“어머, 메리. 미안하구나. 네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큰 소리로 읽는 건 시키지

않을게.” 스미스 자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반에서 아무도 너를 비웃지 않을 거야. 다 네 친구잖니.”

메리가 소곤거리며 말했습니다. “학교 애들은 저를 놀리는걸요.”

스미스 자매님은 메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교실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알게 될 거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친구인 베시가 옆자리에 앉아서 메리의 구겨진 경전을 펴고 있었습니다. 메리가 자리에 앉자 베시가 경전을 도로 건네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읽어 볼까요?” 스미스 자매님이 물으셨습니다.

“메리 차례예요.” 한 남자아이가 말했습니다.

메리는 망설였지만, 주위를 둘러보자 친절하게 웃는 반 친구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스미스 자매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주셨습니다. 메리는 긴장이 되었지만, 읽어야 하는 부분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떠듬떠듬 읽어 나갔습니다. 약간 실수도 했지만 막힐 때마다 베시가 조용히 귓속말로 올바른 단어를 속삭여 주었습니다. 메리는 초등학교 반의 다른

아이들처럼 읽지는 못했지만, 그 누구도 메리를 놀리거나 비웃는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다음 차례가 되고 공과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공과가 끝나고 초등학교 교실로 걸어가면서 스미스 자매님은 메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속삭여 주셨습니다. 메리는 더는 난독증을 숨길 필요가 없어서 기뻐했습니다. 메리는 ‘계속 연습할 거야.’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방긋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신을 도와줄 좋은 친구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

여기에 나오는 공과와 활동을 활용하면 이번 달 초등학교 주제에 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며 그분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 다니엘이 할머니를 도와서 반죽을 떼어 쿠키 판에 올려놓자 쿠키 굽는 냄새가 가득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다니엘을 향해 빙긋 웃으셨습니다. “널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있지?” 할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다니엘은 할머니께서 늘 다니엘이 제일 좋아하는 쿠키를 만들어 주시고,

또 다니엘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것을 아셔서 종이를 준비해 두시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다니엘은 “할머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맞아.”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아빠 다음으로 이 할미가 누구보다도 네 곁에 오랫동안 있었지. 하지만 나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널 아셨던 분이 계시단다.”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네가 지상에 오기 전부터 널 사랑하신 분이시.”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죠?”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맞아.” 하고 말씀하시며 다니엘을 안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걸 알기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올해 함께 나누는 시간에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 더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알고 사랑하십니다. 그분께는 여러분이 언젠가 돌아와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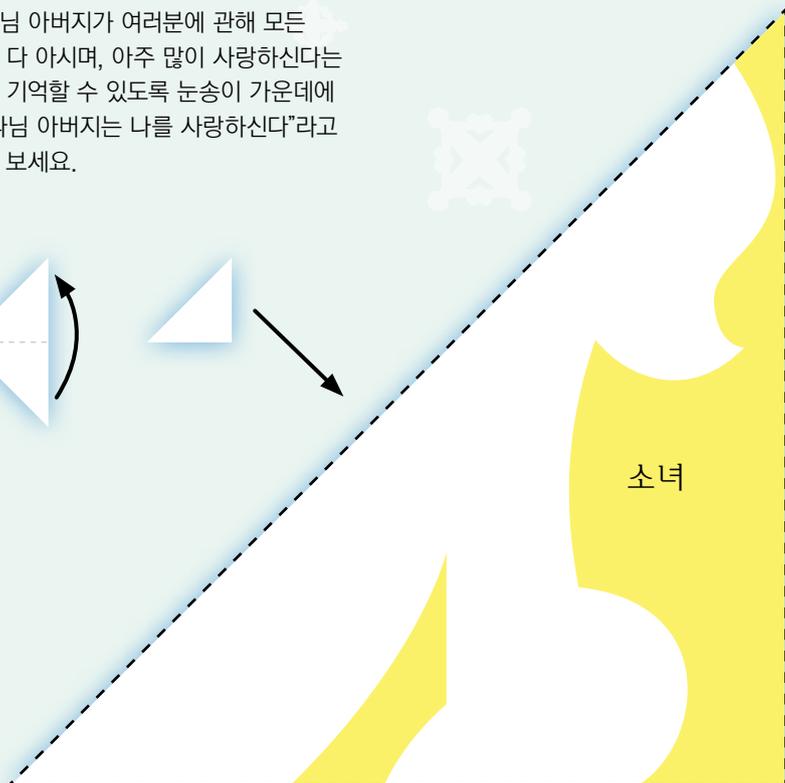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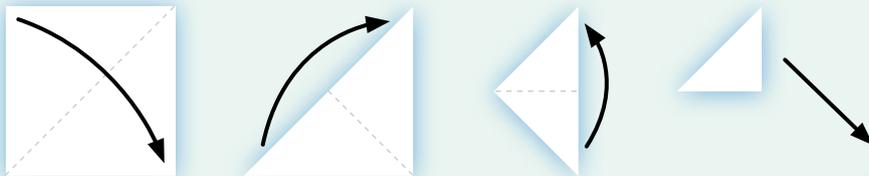


노래와 성구

- “난 하나님의 자녀”, (어린이 노래책, 2~3쪽)
- 로마서 8장 1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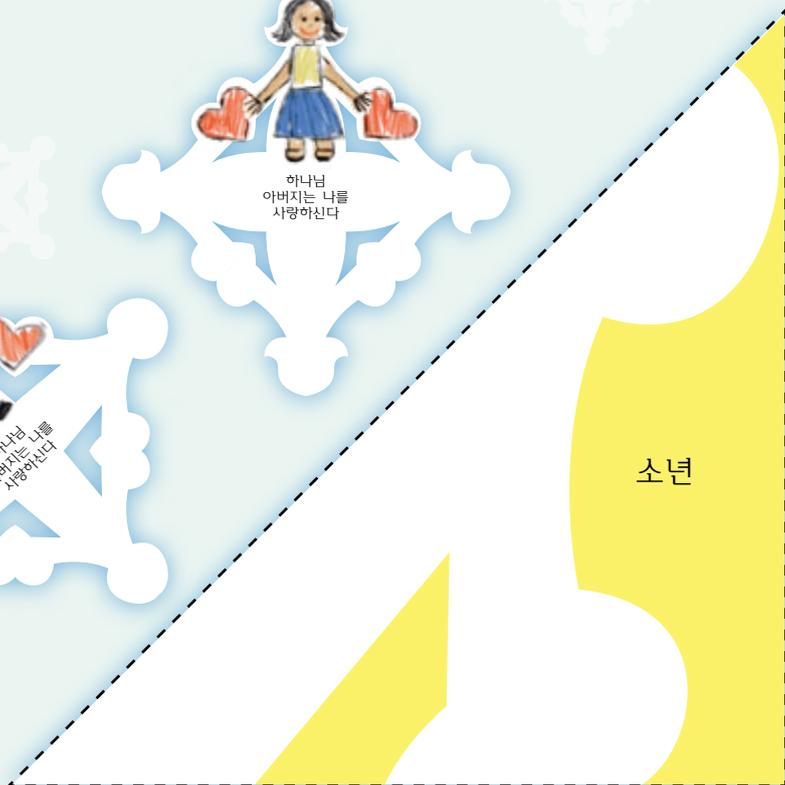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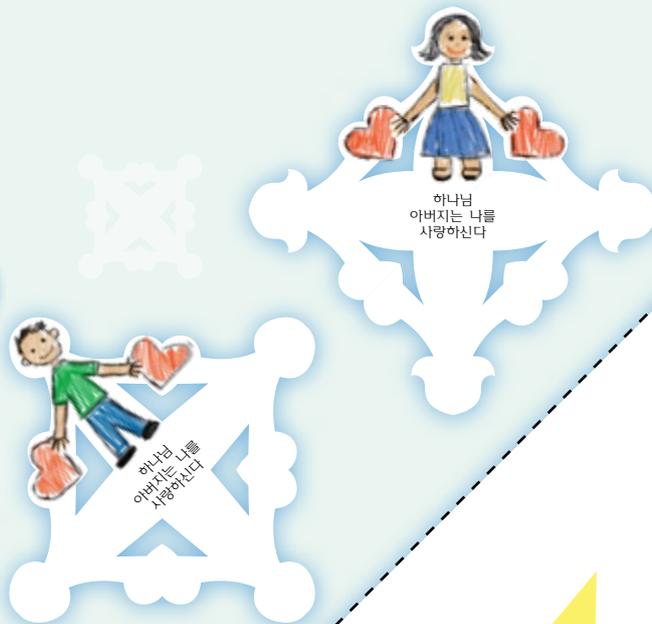
눈송이 만들기

- 가로, 세로 20센티미터 크기인 종이를 반으로 접으세요. 그런 후 두 번 더 반으로 접으세요.
- 소년, 소녀라는 글자가 적힌 눈송이 분을 대고 그대로 종이를 오립니다. 노란색 부분은 잘라냅니다.
- 크레용이나 색연필로 눈송이 위에 있는 소년과 소녀를 색칠해 주세요. 색깔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여러분만의 특징을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 관해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눈송이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적어 보세요.



가족과 대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 눈송이의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이듯 어린이들도 각각 자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자질들을 갖고 있습니다. 눈송이를 만든 후, 가족들이 서로의 눈송이를 돌려받으면서 그 눈송이를 만든 사람의 특별한 점을 말해보고 사랑을 표현한 다음, 옆 사람에게 건넵니다. 옆 사람에게 건넵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알고 사랑하신다는 말을 해 줍니다.
- 또한, 거울을 돌려받게 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제로 토론할 때 가족들에게 거울을 들여다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분과 함께 하늘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행복해지며 언젠가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전에 관한 에블린의 간증

미체 발보사, 머리사 윗손
실화에 근거



에블린은 초등학교에 오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언제나 자신이 기도하겠다고 손을 듭니다. 에블린은 또한 선생님 도와드리기를 좋아합니다.



오늘은 에블린이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날입니다. 교실 앞으로 걸어가는데 배가 사르르 아팠습니다. 그리고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쿵쿵. 쿵쿵. 쿵쿵.



에블린은 교실 앞에 나가서 “안녕?”이라고 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에블린입니다. 우리 가족은 얼마 전에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성전에 갔었습니다.”



에블린은 초등회 어린이들에게 자신이 입었던 하얀색 드레스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성전 역시 순백색이었습니다. 에블린은 어린이들에게 자신과 부모님, 여동생이 영원히 함께 인봉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블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하도록 성전에 가게 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와서 앉은 에블린은 행복했습니다. 마치 따뜻한 빛이 자신의 몸을 통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에블린은 성전에 가서 행복했습니다. ■

성전에 관한 간증

에블린은 성전에서 가족이 인봉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에블린의 방에서 초등회 시간에 에블린이 말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숨겨진 또 다른 것들도 보이나요?



교회 소식

더 많은 교회 소식과 기사를 보려면 news.lds.org에 접속한다

청소년들이 탁월한 학습자와 교사가 되도록 돕기 위해

마이클 바버

신권부, 교과 과정 개발자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교과 과정인, 와서 나를 따르라: 청소년을 위한 학습 자료는 부모와 교사, 지도자들이 청소년들을 도와 복음으로 개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네 가지 방법에 주안점을 둔다.

경전을 통해 구주께서 “계속하여 은혜에 은혜를 받으시더니, 드디어는 충만함을 받으[셨다]”(교리와 성약 93:13)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대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참되다고 아는 것에 일치시킬 때, 온전히

복음으로 개종하도록 도우려고 주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습시다.”¹ 우리가 구주의 성역을 연구하고 본받을 때, 효과적으로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생활하며, 가르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구주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청소년 시절에 대한 경전 기록에서 우리는 구주께서 열두 살 때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이 그에게서 듣기도 하고 그에게 묻기도 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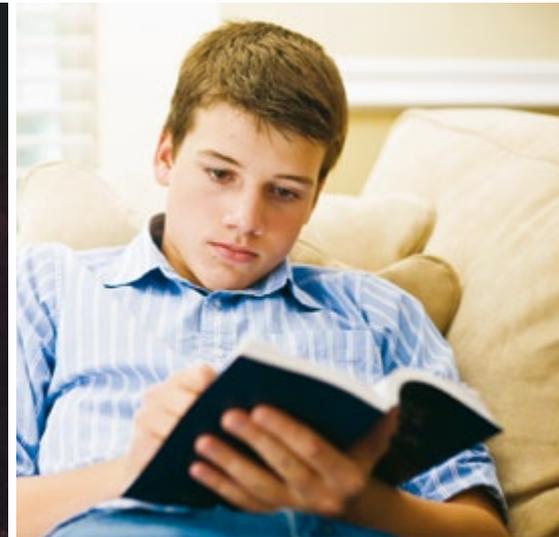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었다]”(조셉 스미스 역, 누가복음 2:46 [영문 성경 누가복음 2:46, 주석 참조])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주께서는 어려서부터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적극적이셨다. 구주께서는 성전에서 자신보다 훨씬 더 학식이 있고 경험이 많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복음 원리를 가르치셨는데, 그것은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집에 있[는]”(누가복음 2:49) 일의 일부이며 지상에서 그분이 맡은 신성한 사명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해하셨기 때문이었다.

의문의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렸지만 뛰어난 복음 학습자이자 교사였으며 교리를 배우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셨다. 우리는



영미아의 그리스도, 윌터 케인 © R



영적인 준비인 연구, 기도와 금식은 교사와 학습자 모두가 성신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구주와 그분의 복음으로 개심하고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니파이 후서 28:30) 지혜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청소년 교과 과정 자료 지도서에서 제일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여러분은 청소년들이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하고, 청소년의 필요 사항에 반응하며, 그들이 복음 진리를 발견하도록 격려하고, 개심하여 신앙에 따라 행동하도록 동기를 줄 수 있다.

영적으로 준비하고

필멸의 성역을 시작하기 전에
구주께서는 부지런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여 영적으로 준비하셨다.
그분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하나님과
함께하시려고 광야로 가시어”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4:1 [영문 성경
마태복음 4:1, 주석b 참조]) 금식하신
후에 구주께서는 대적에게서 유혹을
받으셨다. 매년 유혹이 닥쳐왔을
때 예수께서는 이미 경전을 연구해
두셨기에 성구를 인용해서 물리치실 수
있었다.(마태복음 4:3~10참조) 영적으로
준비했기에 구주께서는 평생 유혹을
이겨 내는 데 성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역을 행하시면서 힘차게 복음을
가르치실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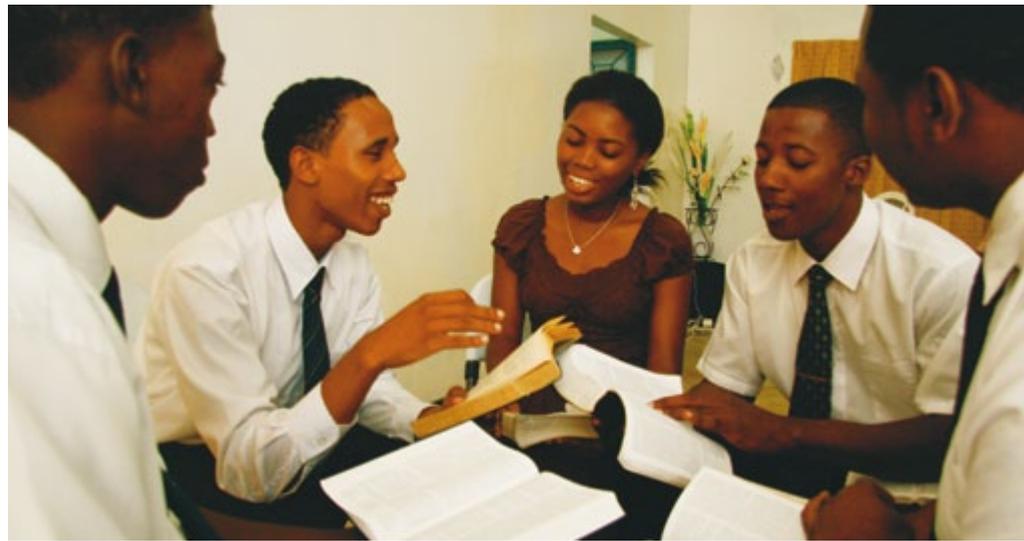
청소년을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기
직전에 공과 책을 빠르게 훑어보는
것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명하셨다. “내
말을 선포하려 힘쓰지 말고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교리와 성약 11:21)
우리는 진정한 교리를 배우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영적으로
준비한다. 이렇게 준비할 때, 성신은
교리가 참됨을 확인해 주시며, 교리대로
생활하면서 얻은 경험을 나눌 수 있게
기억을 불러일으켜 주실 것이다.

페루 리마 서르코 스테이크의
에스테파니 멜레로는 개인적인 계시의
중요성에 대해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열네 살 때 간증을 얻고자 애썼던
경험을 나누라는 영의 속삭임을 느꼈다.
에스테파니는 복음이 참됨을 알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에스테파니, 너는
그것이 참됨을 아느니라. 너는 항상
알았느니라.”라는, 언제까지나 잊을 수
없을 속삭임을 느낀 일을 청년들에게
들려주었다.

가르치는 복음을 연구하고 그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는 단순히 교사가 되는

필요 사항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 관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질문했다. 구주께서는 계명에 순종하는
중요성을 가르치셨고, 이에 젊은 관리는
“이 모든 [계명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라고 답했다. 예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음을 아시고는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청소년들이 복음에 따라 생활한 경험을 함께 나눌 때 서로 강화된다.

것을 뛰어넘어 진리에 대한 증인이 된다.

깊이 생각해 볼 점: 구주께서
가르치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셨던 것을
보여 주는 다른 성구는 무엇이 있는가?

필요 사항에 초점을 맞추며

구주께서는 부유한 젊은 관리와
대화하시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나누어 주고, 자신을 따르라는 과제를
주셨다.(누가복음 18:18~23 참조) 우리가
계시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청소년들의
관심사, 기대와 소망을 알고자
기도한다면,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청소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알게 될 것이며, 그들이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복음에 따라 생활하도록

동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패커 회장님은 우리의 “젊은이들은 적의 영토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² 부모와 교사로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해야만 한다. 콜로라도 콜럼바인 스테이크의 주일학교 청소년반 교사인 케빈 토타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청소년들이 맞닥뜨리는 도전들은 교재에 의존해서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로서 우리가 받는 개인적인 계시로 나아가서 청소년들이 매일 벌어지는 사탄과의 전투를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저 안식일에 교재를 들고 와서 공과를 가르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부모, 지도자, 고문, 교사들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복음 진리를 발견하도록 도와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 있으며, 각 청년 청년들에게는 온전히 개심해야 하는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 청소년 지도자와 교사들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한다.

성신으로부터 영감을 구할 때, 우리는 효과적으로 교리를 가르치고, 앞으로 직면할 유혹과 도전을 극복하도록 청소년들을 준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깊이 생각해 볼 점: 오늘날의 세상은 여러분의 청소년기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은 청소년들이 어떤 도전에 맞닥뜨리는지 아는가? 청소년들이 이해하기만 한다면 시련에 잘 대처하는데 유용할 복음 원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복음 진리를 발견하도록 청소년들에게 권유하고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개인적인 간증을 얻도록 격려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니파이 백성을 가르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연약하여, 내가 이때 너희에게 말하도록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나의 모든 말을 너희가 깨달을 수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집으로 가서,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하며, 너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고, 내일을 위하여 너희 마음을 예비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제3 니파이 17: 2~3)

그리스도처럼 가르친다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청소년들을 인도하여 스스로 교리를 이해하도록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강의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 스스로 답을 찾고 자신의 간증을 얻도록 도와주며, 그들에게 다른 질문이 있을



사진 촬영: 리처드 톨미

때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하는지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교과 과정인 *와서 나를 따르라: 청소년을 위한 학습 자료*에서 강조하듯 우리는 청소년들이 복음대로 생활한 경험을 나누고 자신이 참되다고 아는 것을 또래에게 간증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아이다호 브리검 영 대학교 총장이자 지역 칠십인인 김 비 클락 장로님은 최근에 집사 정원희 고문으로서 집사들과 기도를 주제로 토론했던 이야기를 전하셨다. 그때 집사 정원희 회장은 손을 들고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데, 이번 주 동안 매일 아침저녁으로 기도하겠다고 기꺼이 결심할 사람이 있나요?” 자신이 그 과제를 해낼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 집사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손을 들었다. 고문은 물러나 앉아서 정원희 회원들이 그 청년에게 기도에 대해 간증하고, 그 청년이 그 과제를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얻도록 돕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깊이 생각해 볼 점: 교사는 어떻게 반원들을 배움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을까? 함께 일하는 청소년들이 복음을 공부하는 습관을 발전시키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토론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복음을 배우도록 참여시킬 다른 방법이 있는가?

개종하도록 격려하며

개종은 평생 진행되는 과정으로서 매일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복음을 아는 것

이상으로 개종은 “행함과 됴됨이를 요구한다.”³ 선한 사마리인에 대해 가르치신 후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누가복음 10:37)고 말씀하셨다. 구주께서는 그저 듣기만 하지 말고 가르침을 믿고 행하도록 독려했다.

청소년들이 부지런히 복음대로 살도록 격려해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개종은 한 번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와서 나를 따르라*에 따라 청소년들이 참된 교리를 이해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공부하고 의로운 생활을 해 나가는 습관을 들이도록 격려할 때 참다운 개종이 이루어질 것이다.

콜로라도 아라파호 스테이크 청년 회장인 크리스티나 워닉은 “지금의 청소년들은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야 맞닥뜨렸던, 많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집을 떠나 혼자 생활할 때 저만의 간증을 키우고, 청년반에서 배웠던 것들을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었어요. 청소년들에게 과제를 주고 직접 신앙을 행사할 기회를 주면 아주 어려서부터 간증의 토대를 쌓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개종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배우고, 배운 대로 변화해야 한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마음의 “크나큰 변화”(앨마서 5:14)가 즉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연구하는 습관을 키우고, 항상 기도하며, 계명을 계속해서 지키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온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들이 이러한 것을 행할 때, 그들의 소망과 태도,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변화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깊이 생각해 볼 점: 여러분의 개종에서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살려는 노력은 어떤 역할을 했나? 부모님과 교회 교사와 지도자들이 어떻게 여러분이 강화되도록 도왔나?

청소년을 지원한다

*와서 나를 따르라*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한 부분을 나타낸다. 온전히 개심해야 하는 각 청소년의 개인적인 책임과 별도로,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도와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⁴ 청소년과 더불어 일하면서 우리는 부모를 도울 수 있으며, 예수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영적으로 준비하고 청소년의 필요 사항에 초점을 맞추며 복음 진리를 발견하도록 권유하고 신앙에 따라 행할 기회를 줌으로써 그들이 개종해 나가게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더 나은 학습자와 교사가 되며, 지역 사회와 교회의 미래 지도자들이 스스로 더 유능한 학습자와 교사가 되도록 돕게 된다. ■

주

1. 구주의 방법으로 복음을 가르침(*와서 나를 따르라: 청소년을 위한 학습 자료*, 지도서 2012), 2.
2. 보이드 케이 팩커, “청소년들에게 주는 권고,”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16쪽.
3. 델린 에이치 옥스, “무엇인가 되어야 하는 과제,”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1쪽.
4.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1.4.1.

새로운 청소년 교과 과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lds.org/youth/learn에 접속한다.

2013년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청소년 교과 과정

이번 달부터 전 세계에 있는 교회 교사와 지도자들은 제일회장단 서한에서 9월에 발표한 새로운 청소년 교과 과정 *와서 나를 따르라*: 청소년을 위한 학습 자료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녀와 아론 신권, 주일학교 교사들과 지도자들은 lds.org/youth/learn에서 23개 언어로 준비된 공과를 찾아볼 수 있다. 모든 공과는 인쇄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없는 지역에 있다면 지역 신권 지도자와 연락하여 *와서 나를 따르라*가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알아본다.

제일회장단은 서한에서 “새로운 교과 과정에는 기본 복음 교리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구주께서 보여주신 방법으로 가르침의 원리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새로운 교과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개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들에게 축복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라고 말씀했다.

와서 나를 따르라 교과 과정에 따라 모든 주일학교 반, 청녀반, 아론 신권 반에서는 매달 주어지는 교리적인 주제를 공부하게 된다.

각 공과는 교사를 위한 영적인 준비, 주제를 소개하기 위한 아이디어, 구체적인 활동 아이디어와 청소년이 행하도록 권유함으로 이루어진 네 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들은 반원들의 필요 사항에 맞추어 공과를 선택하고 영감을 구하도록 요청받는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어떻게 새로운 교육 과정을 시행할 수 있는지, 학습 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새로운 안내서인 *구주의 방법으로 복음을 가르침(와서 나를 따르라: 청소년을 위한 학습 자료 지도서)*에 관한 유용한 비디오 자료를 볼 수 있다.



사진출처: 티제이 토마스



아프리카 전역에서 물은 도움의 손길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회 회원들은 가치 있는 봉사를 펼치며, 종교를 초월해 우정을 쌓고, 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사랑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되었다.

아프리카 봉사의 날 6주년

2012년 8월 18일 토요일, 아프리카의 절반이 넘는 나라에서 수천 명의 후기 성도들이 아프리카 물은 도움의 손길 6주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각자의 지역 공동체에 모였다.

공보 선교사인 씨 테리 워너 장로는 이메일에 “와드와 지부 회원들은 나가서 주목할 만한 봉사를 제공했습니다.”라고 썼다. “그들은 협력 단체를 모집하고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돕고자 하는 열망으로 참여했으며, 그들은 정말로 교회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아프리카 지역 공보책임자인 아데시나 제이 올루카니 장로는 봉사의 날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이것은 이웃에게 친절하고 그들의 필요 사항을 돌아보며, 받기보다는 주라고 하신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모범은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20개 언어로 이용하게 된 Mormon.org

Mormon.org를 이제 한국어, 아르메니아어, 세비아노어(필리핀 세부 지방 언어), 중국어, 네덜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라트비아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필리핀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 태국어와 우크라이나어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자 선호하는 언어로 자신만의 mormon.org 프로필을 작성하여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도 있다.





은혜의 참다운 능력

나는 2012년 4월호의 두 기사,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의 “필멸의 여정과 속죄”(12쪽)와 크리스틴 니콜 카돈의 “놀라우신 은혜”(10쪽)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필멸의 삶을 살아가며 영생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은혜의 참다운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 의문에 완벽한 답이 되었다. 나는 이해력의 지평을 크게 넓혀 준 이 두 기사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그것들을 두고두고 음미할 것이다. **엠마누엘 아두 캄피, 가나**

고침

2012년 1월호 제일회장단 메시지인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에서 메리 앤 래드마커의 말을 인용한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인용문은 *리아호나* 5쪽에 있으며 래드마커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기는 하루를 마치며 ‘내일 다시 시도해 볼 거야.’라고 말하는 고요한 목소리일 때도 있다.” 이 말은 래드마커의 또 다른 저서인 *Courage Doesn't Always Roar*(2009)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하나님의 우월한 지혜**”, 20쪽: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여 토론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니파이후서 9장 28~29절을 읽어 볼 수도 있고 세상의 지혜와 복음에서 가르치는 지혜가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각 상황에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결정한다.

“**2013 상호 향상 모임 주제**”, 50쪽: 2013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에 관련된 일레인 에스 돌튼과 데이비드 엘 벅의 기사를 읽는다. 가정을 거룩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 모든 가족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브레인스토밍 방법으로 토론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계속 연습하면**”, 56쪽: 가족 장기 자랑을 고려해 본다. 가족 모두에게 재능을 나누거나 공연을 준비하도록 제안한다. “계속 연습하면”을 읽고 나서 연습하고 재능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지 토론한다.

“**성전에 관한 에블린의 간증**”, 70쪽: 간증 물건 찾기 가족 놀이를 할지 고려해 본다. 방안에 사진을 배열해 두고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사진(예: 가족, 성전,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침례, 십일조 명세서, 단정한 복장을 한 청소년 사진)을 모아 오도록 한다. 골라온 사진이 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지 토론하며 마친다.

.....
어둠 속의 공과

10월의 어느 날, 가정의 밤 동안 가만히 있지 못하는 딸 줄리아가 이렇게 말했다. “어둠 속에서 단 한 번도 가정의 밤을 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한번 해 보는 게 어때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딸아이에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했다.

우리는 전등을 끄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그때 남편이 휴대폰을 열었고 그리스도의 빛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다. 남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족을 어둠에서 이끌어 내며 구주께 인도하는지를 보여 주었다. 휴대폰의 빛은 그리 밝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었다.

휴대폰 불빛이 주기적으로 자동으로 꺼졌기에 우리는 딸에게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삶이 어떨지를 보여 줄 수 있었다. 영이 아주 강했기에 우리 딸은 아주 경건해졌다. 지금까지도 딸아이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가정의 밤과 그때의 공과를 기억한다.

발키리 리마 도스 산토스, 브라질

5분의 실수

크리스토퍼 제임스 스미스

대 학 생활이 끝나 갈 무렵, 나는 졸업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졸업식에서는 전통적인 학사모와 가운을 입은 모든 졸업생이 학교를 방문한 저명인사로부터 학위를 받는다.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 왔다. 4년간 힘들게 공부한 것을 경축하는 이 자리 말이다. 졸업식 날 아침, 대학교에서 편지가 한 통 왔는데, 나는 그것을 열어 볼 시간이 없었다.

졸업식은 오후 1시 30분에 시작했고 나는 시작 전에 졸업식 사진을 찍으려 했다. 불행히도 사진을 찍는 줄이 길었고 곧 있으면 졸업식이 시작할 참이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린 나머지 사진을 꼭 찍기로 했다. 결국, 졸업식 시작 10분 전에 사진을 찍고 부리나케 강당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도착해 보니 문은 굳게 닫혔고 경비원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들어가게 해 달라고 사정했지만 안 된다고 했고, 자리에 착석하려면 15분 일찍 왔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런 주의 사항은 처음 들었던지라 나는 항의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 학위를 받기 위해 4년간 노력했는데 졸업식에서 졸업장도 못 받게 된 것이다. 나는 방문자들과 함께 객석에 앉아야 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아침에 받았던 편지 봉투를 열어 보았다. 적어도 15분 일찍 와서 착석하지 않으면 입장이 거부될 수 있다는 분명한 지침이 있었다. 그러자 내가 구주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처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련한 처녀들이] 사리 간 사이에 신랑이



나는 5분 차이로 자리에 앉지 못했다. 그 5분은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할 만한 시간은 분명 아니지 않은가.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마태복음 25:10~12)

중요한 축하 행사에 들어가지 못한 일은 사소한 실수로 여길 만한 일이 만든 심각한 결과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나는 그 일에서 선택과 결과에 관한 것을 깨달았다. 땅에서 막대기 한쪽 끝을 잡아 들어 올리면 반대편 역시 잡아 들어 올리는 셈이다. 다른 선택과 마찬가지로 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수반되는 결과까지 선택했던 것이다. 그 결과가 완전히 뜻밖의 것일지라도 말이다.

결과는 제쳐 놓고 선택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다. 사탄은 육체적인 욕망, 즉 “육체의 뜻”(니파이후서 2:29)과 즉각적인 탐닉에만 집중하도록 유혹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한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과 영원한 축복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결과를 생각하며 그 결과가 동기의 일부가 되기를 기대하신다. “그들은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니파이후서 2:27)

공식적으로 학위 졸업장을 못 받은 일은 아쉽지만, 신랑 면전에 영접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결정도 하지 않겠다는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 준 경험을 한 것에 감사드린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라는 말을 듣고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마태복음 25:21)라고 말하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택을 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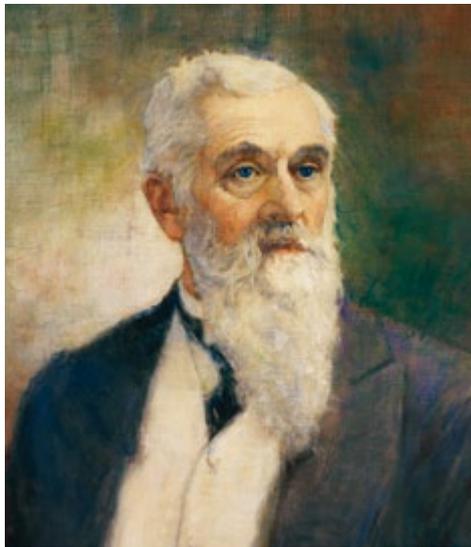




성화: 엘 티 버넷

조셉 스미스

조셉 스미스는 열네 살 때 어떤 교회가 참된지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조셉에게 나타나셨고, 그는 지상의 그 어떤 교회에도 완전한 진리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회복되도록 도왔으며, 후기의 첫 번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 일 가운데에는 금판에서 몰몬경을 번역하고, 성도들에게 지시하여 이 경륜의 시대 첫 번째 성전인 커틀랜드 성전을 짓게 한 것이 있습니다.



로 렌조 스노우 회장과 만난 다른 교회 목사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강의 힘이, 품모에는 평화의 기도가 서려 있었다. 잔잔하고 깊은 눈 속은 ‘고요한 기도의 본향’이자 영적인 힘이 거하는 곳 같았다. …… 나는 ‘거룩한 땅에 서 있구나.’ 하는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피클, 순무, 그리고 간증: 로렌조 스노우의 삶과 가르침이 주는 영감”, 12쪽 참조.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